

2017년 2학기 백석연구소

기독교학문 연구를 위한 소모임 운영 결과 자료집

2017. 11.

백석정신아카데미 백석연구소

목 차

1. Being a Good Follower -----	1
2. 융합학문 기반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모델 설계 -----	14
3. 기독 어벤저스 4 -----	25
4. 생명사랑 베리타스 -----	40
5. 한국 경제 현상에 대한 성경적 대안 -----	53
6. 2H@BU -----	60
7. 직장에서의 영성 -----	72

소모임명	Being a Good Follower(B.G.F)	소모임 구성원	김태희, 금란, 한숙원, 김민숙, 서임선
연구 결과의 요약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과도한 성취욕에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눈뜨게 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그 시간을 통해 내면 세계를 정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실제적인 문제와 예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각 멤버들은 각자 교재를 읽고 요약해 보았으며 멤버들 간에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해부하고 정리하여 형식주의 외형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일상에서 영적 훈련을 도모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따스한 애정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Shepherdship)을 가진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해 읽고 토론하였다		

서론

1. 목적 및 필요성

소모임을 통해 멤버들 간의 영적인 유대감을 가지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알아가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혼란스러운 인생을 안겨주는 삶이 아닌 내면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 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학생들에게 좀 더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소모임 구성원들이 서로 각자 맡은 부분을 읽고 요약을 하였으며 소모임 때마다 발표하고 그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말하고 토론하였다.

본론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당신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고 자신도 그러했던, 내면세계가 아닌 외면세계가 우리를 살아가게 했던 시절들과 그리고 그것을 내면세계로 옮겨갔을 때의 기쁨과 흔들리지 않음, 그렇다면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 중간 중간 방법론적 제시가 주 내용이다. 각 장은 거의 예화로 시작한다. 어렵지 않게 예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서문: 벽에 부딪치다

항상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 목사가 30이 되던 해 어느 토요일 어느날 아내가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하고 던지자 4시간동안 울게 된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 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길을 돌아보기 시작하였고 그 성찰의 결과, 그의 삶은 변화 되었고 그 변화가 글로 옮겨져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나왔다.

1. 함몰웅덩이 증후군

도로의 지반이 내려앉아 함몰웅덩이 속으로 모든 것이 함몰되어갔던 것처럼 수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의 함몰 웅덩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지하수의 고갈이 함몰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삶의 지하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내면세계를 돌보지 않고 외적인 세계, 측정 가능한 것들을 추구하며 언젠가 모든 것이 송두리째 추구하던 모든 것들과 함께 함몰되어 버릴지 모르는 극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적세계가 있다. 이는 측정가능하고 다루기가 더 쉽고, 평가 가능한 영역이다. 표면적이고 가시적 세계에 사는 사람은? 보이기 위한 가시적 환경 즉, 공적(외부)세계를 집착한다. 공적세계는 시간과 충성, 물질과 에너지를 끝임 없이 요구한다. 그러나 그 반대편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 본질적으로 영적인 영역 즉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며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는 예배와 고백이 행하여지는 성도의 지체(장소)이다. 우리에게는 내면세계가 있다. 본질적으로 더 영적인 영역이고 미지의 세계이며 끝이 없는 세계다.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개발의 영역으로 잘 관리되지 못한 영역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바로 신앙의 영역에서 공적세계를 추구하며 함몰일보 직전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경쟁한다.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도 일종의 성취의 영역이 되었고, 명예와 권력 그리고 과시의 현상이 되어 버렸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침몰이다.

2. 조종실에서 보는 시각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종실이다 함장은 본능적으로 조정실을 가장 중요시한다. 우리 몸이 잠수함이라면 마음(내면)은 조정실이고 함장은 예수님인데 어디를 보시겠느냐 하시는 반증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는 곳은 조종실이듯이 우리의 삶을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조정실은 내면세계이다. 내면 세계만이 어떤 외부의 폭풍을 헤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유일한 장소이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내면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inside-out approach, 스티븐 코비)

잠언에서는 이를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잠언4:23)로 표현하고 있다. 마음은 인생의 조종실이다. 이곳은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한 고요한 곳이어야 하고, 외부의 격동을 극복하고 그에 위축되지 않는 힘이 나오는 곳이다.

완전 동감이다. 내 삶이 빠격거릴 때는 항상 마음이라는 조종실에 문제가 있을 때이다. 내면세계가 복잡하고, 무언가에 쫓기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내재된 분노로 뒤범벅이 있을 때이다. 외적세계는 그럴 듯하게 치장할 수 있지만 내적세계는 치장하려는 노력조차 못한다. 마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영역에서 위대함이 탄생하고, 거대한 배를 목적지 까지 데려다 주는 방향타 역할을 한다. 롬12:2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대중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의 독자성을 완벽하게 유지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제1부 동기부여

3. 황금 새장에 갇힌 인생

저자는 인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내면세계를 탐구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 선택하시면서 비상한 통찰력으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쫓겨 다니는 사람 VS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내면세계의 질서 없이 자신만의 새장에 갇혀서 쫓겨 다니는 사람의 특징으로는

1.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낀다. 과정은 중시하지 않고 오직 결과로서 성취함으로써만 만족을 얻는 사람이다.
2. 그들은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하고 권력이라는 개념을 늘 의식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기 위해 애쓴다
3. 보통 고삐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더욱 성공하는 그리고 확장해가는 일에 집착하고 기회를 잡기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4. 온전한 인격에는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어 성공, 성취에 몰두하고 있어 내면의 인격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5. 대인관계 기술을 닦는 데 신경쓰지 않으며 타인을 기쁘게 할 일들, 환경을 잘 만들지 못하는데 이는 목표지향적이기 때문이다
6. 보통 경쟁심이 강하고 모든 일을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생각하며 승리하는 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받기를 원한다
7.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 분노를 표출한다
8.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인 예배를 피하는데 이는 자신이 만족할 만큼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성취를 위해 바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어느 성공한 못난이 이야기

쫓겨 다니는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환경에서 '잘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 어린 시절 체험한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 쫓기는 것이 아예 생활방식이 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르심에 의해서가 아니

라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정돈된 내면 세계의 평온함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기와 가치관을 살펴보고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을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충동에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순간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데 부름받은 사람은 내면지향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면서 쫓겨 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중심의 인생계획에 따라 나아가며 허세부리며 자신만만해 하는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부딪치면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데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은 내공의 힘을 가지고 있어 외부의 어떠한 타격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와 힘을 갖고 있다

5. 부름받은 사람의 삶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첫째,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고 있는데 청지기의 일이란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인이 오면 넘겨주는 것이다. 둘째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고 그 이유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한다. 즉 부름받은 자는 자신이 청지기이며,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목적의식이 투철하여 뒤로 물러나서 손은 놓아야 할 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살수 있다는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에 순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고통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를 통하여 부름받은 사람의 특별한 자질을 갖게 되는데 이는 예언자적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 평온을 잃지 않는 것이며 확고한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쫓겨 다니는 삶을 요구받고 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여유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면세계의 질서를 가다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만일 이러한 것들을 빼앗긴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나를 비롯하여 주위의 미미함, 숨겨짐, 무력함을 안고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부름받은 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제2부 시간 사용

6. 누구 내 시간 본 사람 없소?

- 세상은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기 훈련이 없이는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없고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 해도 자기 훈련 없이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는 없었다.

- 무질서의 증상 : 시간 뿐 아니라 책상, 차의 상태가 흐트러져 있으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끝내야 할 일의 마감일을 놓치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 등등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거의 누리지 못한다.

=> 이 모든 것이 의지와 자기관리의 문제이다.

- 내면 세계의 질서를 원한다면 시간 관리법의 요령을 배우기에 앞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근본적인 원칙**이 있다.

1) 시간 예산 세우기

- 필수적인 지출을 위한 예산을 세운 뒤에야 갖고 싶은 것을 위한 임시비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간사용에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

2) 시간의 주인

- 예수님은 개인비서 없이도 공적인 시간을 잘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묵상을 위한 자기만의 시간과 제자 훈련을 위해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보낼 시간도 적절히 할애하셨다. 즉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간을 잘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다스렸을까?

첫째 :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다. 이루어야 할 커다란 과업이 있고 그 사명에 맞추어 시간을 조정함(눅 18장)

둘째 : 스스로 한계를 잘 알고 계셨다.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서 천국의 왕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적인 제약을 그대로 수용하심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앞두고 홀로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심

즉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강하기 위해 내적인 힘과 결의를 모으는 데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이 부족해서 쫓기는 법이 없으셨다.

7.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방치된 시간에 관한 맥도날드의 법칙

제1법칙 : 방치된 시간은 내 약점을 향해 흐른다.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을 제쳐놓고 잘 못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무절제하게 사용함
예)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현 상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유형인 경우 설교자, 교사, 상담가, 비전을 품은 조직의 리더십에 적격. 이런 능력은 독서, 연구, 사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함. 하지만 본인은 행정 업무에 75% 정도의 시간을 써버리고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설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기에 공부와 설교준비에 비교적 적은 시간만을 할애. 최선을 다하지 않음.
-> 행정목사에게 교회행정을 위임하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쏟음
-> 최적인 일에 집중

제2법칙 : 방치된 시간은 자신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스스로 시간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기 세계에 들어와서 시간 계획을 강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음을 발견. 내가 시간 관리의 주도권을 쥐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우세한 자들이 내 시간을 좌우하게 됨

제3법칙 : 방치된 시간은 온갖 긴급한 일에 소모된다.

제4법칙 : 방치된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일에 쓰이게 마련이다.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시간을 성공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생산성이 최고로 높은 때를 비롯한 생활 리듬을 알아야 한다.

- 규칙적인 수면시간, 스스로 준비를 갖추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리듬을 파악하여 아침과, 저녁, 봄과 여름, 주초와 주말 등을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서 사용

둘째,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갖는다.

- 최선의 것을 취하기 위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일 아침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말끔하게 설교단에 서기 위해 토요일 저녁파티나 운동경기를 거절하는 것.

- C.S. 루이스 “미국여성에게 보내는 편지” : 하나님이 당신이 꼭 하지 않아도 될 온갖 일들을 전부 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술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무절제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예산을 충분히 앞서 세울 때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

-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시된다 하더라도 당장 고통을 지르지는 않는다. 영적 훈련, 가족을 위한 시간, 연구 시간 등은 덜 중요한 다른 것들에 의해 한주 한주 밀어내어지더라도 별 탈이

없는 듯 보이지만 비극적인 사실은 이것들을 너무 오래 무시하면 가족관계, 휴식, 영적 훈련 등은 심각한 지경으로 처해 결과를 모면하기에 너무 늦어질 수 있다.

제3부 지혜와 지식

8.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 경기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끝까지 경주를 마치기 전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첫 구간을 선두로 뛰었다 해도 끝까지 잘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꾸준한 속력으로 뛰어야 한다. 훌륭한 주자는 경주의 마지막 코스에서 최종 스퍼트를 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인내력을 견비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내면 세계에 질서를 잡는 일은 강한 정신적인 인내와 그러한 인내의 열매인 지적 성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정신적으로 잘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대개 인간의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상 및 제도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강한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하게 된다. 지각 있는 삶에는 상당한 훈련과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지각없는 상태는 게으름과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우리 대신 생각해 줄 수 있을 때에는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쉽다. 많은 교회에서도 평신도들이 독재적인 목사에게 사고하는 책임을 맡겨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때 이른 성공을 하는 사람은 대개 학습 속도가 빠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전문성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 재능 있는 빠른 출발을 한 사람의 경우 30대 초반이 되면 어디에선가 문제의 소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남은 인생의 경기는 재능이 아니라 인내와 자기 훈련으로 경주해야 한다는 첫 번째 암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타고난 재능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가지만, 경주가 끝나기 훨씬 전에 주저앉게 하고 만다.

지성은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온전히 잡힌 사람들은 매일같이 정신을 단련시키기로 다짐한다. 사고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주변의 지배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 그 모양으로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변화 받은 사람은 사고하고 반추하고 삶과 실제의 의미에 대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에 부지런할 것이다.

생명력 있는 기독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헌신하는 삶, 외적으로 섬기는 삶, 지적으로 합리적인 삶이 잘 계발되어야 한다. 무딘 지성은 결국 내면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든다. 행동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유하지만 사고하는 사람은 연구를 통해 미래를 얻는다.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주로 쓰는 용어를 풍부하게 구사하며 그들의 기도는 아주 유창해서 옆에 앉아서 듣는 이들을 감동시킨다. 당연히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고집스럽고 뻔뻔하며 변화나 혁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누군가가 도전하면 화를 내고 비난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토대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상과 가장 예리한 분

석과 가장 획기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지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약한데, 곧 **지적인 신앙인들**이다. 또 어떤 이들은 감정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적으로는 약한데, 곧 **감성적인 신앙인들**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의지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약한데, 곧 접근하기 어려운 무쇠 같은 사람들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참으로 균형 있는 강한 성품을 만들어는 내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리스도인의 지성이 자꾸만 무디어진다면 비기독교적 체계의 선전의 먹이로 전락할 수 있다. 지적인 성장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는 나약해지고 무방비상태가 되며 무질서해지고 말 것이다.

9.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여러 장이 붙은 채 읽히지 않은 책과 같다. 육체 노동이나 힘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는 것과 같이, 지성 또한 적절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어떻게 하면

- 사려 깊게 말하는 속 깊은 사람들
- 얕은 생각의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 더 귀에 거슬리고 불편한 다른 이들의 생각들이 우세한 세상에 살면서도 지적으로 게으름 피우지 않는 사람들
- 온갖 가능성들을 꼼꼼히 탐색하여 깊은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 독립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 이념에 속박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

내면 세계의 지성계발을 위해,

1. 우리의 지성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기독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분의 소유라는 것, 우리는 창조 세계에 대해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 장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등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온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본능적으로 기독교적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헌신의 측면에서는 이제 막 회심한 신자만큼 열정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고 그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하나의 죽은 종교, 상투적인 신앙, 비효과적인 증거의 원인이 된다.

2.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기록해 두신 메시지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가장 주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우리의 지성은 **공적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섬길 목적으로 정보와 아이디어와 통찰을 추구**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지성을 계발하는 것은 내가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나 자신의 지적 성장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내면 세계에 지적인 체계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1. 경청하는 사람되기

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를 방문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

② 멘토의 말에 귀기울이기

③ 비판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도 반드시 지적성장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공정하지 못한 비판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그것을 밀실로 가지고가서 주님 앞에 사실대로 털어놓고 “주님, 이 비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의 알맹이를 보여 주옵소서!”하고 기도하라.

* 우리는 들음으로써,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음으로써 성장한다. 질문을 던지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내린 선택으로 겪게 되는 좋거나 나쁜 결과를 보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2. 독서하기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무력한 삶을 향해 급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을 확률이 높다.

3. 공부훈련하기

눈앞에 닥쳐서 정신없이 하는 공부는 방어적인 공부이며 방대한 지식과 통찰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는 공격적인 공부이다. 공격적인 공부를 열심히 훈련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 기록을 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와 통찰을 저장하고, 그럼으로써 가능한 모든 성장기회를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지성의 성장과 계발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한없이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제4부 영적인 힘

10.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

생리학적으로 사람의 내세계의 영적 중심부가 어디 있는지 지적할 수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며 영원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통하는 지점이다. 내면의 영적 중심부를 표현한 여러 은유 가운데서 정원이 가장 좋은데, 정원은 평화와 고요함이 깃든 장소이다. 이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며,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곳이다. 이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면 번잡함과 복잡한 소음과 혼돈이 없는 고요한 장소가 된다. 이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덩굴로 뒤 덮일 것이고 하나님은 난잡하게 어지러워진 정원은 거닐지 않으신다.

내면 세계의 영적 차원에 질서를 잡는 것은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며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 몸을 단련 하듯 영의 훈련을 지금 시작해야한다. 이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1) 창조 시 의도된 대로 영원하고 무한한 관점으로 실재를 바라보고 누리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이다(두려움, 판단 능력의 감퇴 등), 2)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재를 잃게 된다(밋세바 사건), 3)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두려움을 잃게 된다(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림), 4) 창조주 하나님에 비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지 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5) 실패, 치욕, 고난, 사랑하는 이의 죽음, 고독 등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만한 저력이나 투지가 없다.

내면의 정원을 계속 돌보고 하나님의 영이 그 곳에 거하시면, 용기, 희망, 사랑, 인내, 기쁨, 평안, 자제력, 악을 분별하고 진리를 찾아내는 능력과 같은 꾸준한 수확을 거두게 된다. 또한 그 중심에 들어가면 급히 서두르며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 ‘예’ 뿐 만 아니라 ‘아니오’도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 곳이 된다.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영적 훈련을 가장 진지하게 여겼으며 이를 실천 할 때에는 정규적으로 일상생활과 인간관계를 떠나야 한다고 믿었다. 교회 행사와 종교 행사가 정도에서 너무 벗어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곤 했다. 정원을 가꾸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힘든 고난을 겪어야 함을 역사가 거듭 말하고 있다. 고통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에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복’ 받은 사람들은 시류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영적훈련을 방해하는 복은 분명 복이 아니다.

11. 믿음으로만 버티는 인생

내적인 영을 강건케 하는 영적훈련 네 가지를 소개한다. 그것은 1) 침묵과 고독, 2) 하나님의 음성듣기, 3) 사색과 묵상, 4) 예배하고 중보하는 기도이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소음은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이다. 하나님은 보통 큰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며 시끄럽고 불안정한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침묵의 기도 속에서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외적인 활동 영역에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잡담, 분주한 일정, 전화기에서 울리는 교향곡 등 소음에 파묻혀

살고 있다. 여기서는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고독의 체험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을 불편해 하는데 정기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그리고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늙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세례오한이 태어날 때, 마리아가 주님 탄생에서 맡게 될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발설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했다. 예고된 이 놀라운 일들을 숙고하고 이해하기 위해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인간의 침묵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침묵과 고독이 익숙하지 않고 평생의 싸움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누구나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 기질에 맞게 시간과 장소를 찾아야 한다.

내면을 가꾸기 위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일기 쓰기이다. 일기는 그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둬들여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적나라하게 대면해 보지 못한 속사람을 마주하게 된다. 좋을 때 뿐 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록하여 약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12.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라

고독과 침묵 중에 듣게 되는 것들은 내면화 되어야 한다. 이는 성찰과 묵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성찰과 묵상이 담긴 구절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말씀에 우리 마음 문을 열라고 한다. 말씀을 성찰 할 때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데려가고 묵상으로 말씀을 붙들거나 외우고 거둬 생각하면서 내면 존재의 구조 속으로 녹아들게 한다. 성찰과 묵상을 위해 적당한 시간, 침묵, 혼자만의 순간 등이 두루 갖추어진 환경을 조성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내면이 더욱 잘 가꾸어지고 내면세계가 더욱 강건해지게 된다.

13.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진 눈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네 번째 방법은 예배와 중보기도이다. 위대한 신앙인의 “성인다움은 가장 사소한 행동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에 있었다. “내면의 기도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행동이 되고 잠에서 깰 때 처음 행동이 되도록 하라.”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1) 예배와 중보기도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죄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행위가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바뀌어버림). 2) 예배와 중보는 우리의 나약함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말로는 시인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를 기꺼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3) 기도가 때때로 실제적인 결과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그분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시간 및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배와 중보기도는 나 자신의 목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일이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이다. 토머스 켈리는 “주님, 당신이 저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야말로 온전한 기도라고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기도는 그저 “아버지,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다.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 전적인 경청을 추구하는 삶은 놀랄 만큼 완전한 것이다. 그러한 삶은 빛나는 기쁨, 심오한 평화, 뿌리 깊은 겸손, 세상을 뒤흔드는 권능,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예배와 중보의 실질적인 측면은 세 가지이다. 1) 시간(언제 기도할 것인가?, 아침시간 혹은 저녁시간), 2) 자세(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엎드린 자세, 납작 엎드린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가능하다), 3) 내용(하나님과 만나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한 중보기도자는 목록을 만든다.) 등이다.

영적훈련 중 예배를 할 때 첫 번째 순서는 경배이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찰하고, 구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인해 감사함으로써 예배할 수 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추어볼 때 우리 자신은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 이것이 고백이다. 영적 훈련에는 우리의 진면목을 정기적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최근의 행동과 태도를 인정하는 일이 포함된다. 건강에 해로운 특정한 정신적, 감정적, 도덕적, 영적태도인 분노, 원망, 두려움, 걱정, 지배욕, 자기집착, 죄책감, 성적 부도덕, 시기, 창조적 활동의 결여, 열등감, 사랑의 결핍과 같은 것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 앞에 내어 놓는 법을 배우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면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역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영적 권위와 책임이 커질수록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에릭 리델이 수용소와 같은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비범한 지도력과 기쁨, 온전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해진 시간에 외에도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러한 내적 훈련을 받기위해 ‘기도학교’에 들어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다.

개인소감: 모든 신앙인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영적 훈련 방법과 시간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평소에 단련된 내면의 정원이 내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상태의 평안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도 한다. 우선은 개개인이 이러한 생활을 습관화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함께하는 보다 넓은 공간의 분위기나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고 이것이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제5부 회복

14. 여가 이상의 쉽

우리는 쉽이 필요하다. 쉽은 사치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쉽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일을 해석하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마땅한지를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진정한 안식일의 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아 그런 쉽을 가질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얼마나 굳세고 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물레질이란 시간을 우선 순위에 따라 질서 있게 계획하고,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도록 맞추고, 영적으로 더욱 예민해지고, 평온한 안식일의 쉽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요한 중심부 속으로 물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면 세계다. 진정한 주의를 기울이면 질서정연한 상태가 되는 세계다.

3. 결과 및 결론

거의 매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소모임을 가졌으며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면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성원들 모두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계속해서 이러한 소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였으며 허락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결론지었다.

참고문헌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홍화옥 옮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소모임명	융합학문 기반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모델 설계	소모임 구성원	박선영(백)간호학과 박정란(백)치위생학과 백성희(백)간호학과 서강태(문)글로벌외식관광학부 심재훈(백)물리치료학과 이은정(백)사회복지학부 이근호(백)정보통신학부
연구 결과의 요약	학문은 철학에서 시작해 과학과 수학 등으로 분화되어 끊임없이 세분화되어 오면서, 현대에 와서는 분화가 아니라 융·복합과 통합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기독교 학문연구 소모임은 보건, 외식, 사회복지, 정보통신의 다학문 영역간의 융합 뿐 아니라 기독교학문과의 융합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위하여 시도 되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파악하고 실천하려는 이론체계이자 실천지침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소모임 구성원의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전공 학문의 이해를 시도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융합학문 모델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융합교육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교과영역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중심 교육방법 도입 등이 필요하며 교과간 통합, 영역간 통합을 통하여 간학문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암기식과 주입식의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토론, 실험, 현장실습 등의 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선다형이다 단순 암기식 평가 방법을 벗어나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발표 등의 과정중심적이고 실제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1. 목적 및 필요성

학문은 철학에서 시작해 과학과 수학 등으로 분화되어 끊임없이 세분화되어 오면서, 현대에 와서는 분화가 아니라 융·복합과 통합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기독교 학문연구소모임은 보건, 외식, 사회복지, 정보통신의 다학문 영역간의 융합 뿐 아니라 기독교학문과의 융합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위하여 시도 되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파악하고 실천하려는 이론체 계이자 실천지침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소모임 구성원의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전공 학문의 이해를 시도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융합학문 모델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융합학문 기반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모델 설계를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이해한다.
- (2)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하여 이해한다.
- (3)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전공학문을 이해한다.
- (4) 융합학문 기반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모델을 제시한다.

3. 결과 및 결론

1)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

세계관이란 우리가 속해있는 ‘세계를 보는 관점(시각)’으로 모든 실재에 대한 정신활동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전제의 틀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실재’는 우리가 속한 세계를 가리킨다. 즉,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물 뿐 아니라 가정,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가치, 규범, 의미, 중요성 등의 무형의 존재도 포함한다. ‘정신활동’이란 흔히 말하는 모든 생각이다. 믿음, 신념, 관점, 철학, 사고방식, 사유, 창조 등을 포함한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세계관은 다섯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하희승, 2010).

첫째, 세계관은 인식의 근거가 된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한다. 세계관은 인식의 틀이며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세계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인식하며 반응한다.

둘째, 세계관은 사고하는 방식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경험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방식도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세계관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세계관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도덕적 결단이나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한다.

넷째, 세계관은 창조의 바탕이 된다. 예술가의 사상이나 생각 혹은 감정표현 등의 정신활동은 세계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세계관은 행동의 틀이 된다. 세계관은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크리스천이 가진 세계관을 말하기도 하며, 기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적 의미에서 바라본 세계관도 결국은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이 두 가지 구분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크리스천의 신앙과 생활에 큰 그림을 제시한다. 즉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 전체를 통틀어 파악하는 넓은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전체적 관점 즉,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최태연, 2011).

(1) 창조(Creation)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창조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적 기초이다. 이 세상이 그저 있게 되었다거나, 우연히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계시하셨다면 그것까지를 역사 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선진들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히 11:2, 3).

(2) 타락(Fall)

타락은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된 피조세계가 오늘날 왜 이렇게 피폐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해준다. 즉 타락은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포함하여 모든 반역의 원천이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의 관계를 훼손시켰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끊임없는 범죄와 수많은 반성경적인 세계관, 학설, 주장, 이데올로기의 기원이 곧 인간의 타락이다.

(3) 구속(Redemption)

그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엡 2:1)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을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셔서, 성경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믿는 일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이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이 결국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메시아적 사역의 중

요한 부분이였다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구속을 믿는 것이다. 이 구속은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도입해 들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건인 것이다.

(4) 완성(Consummation)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에서야 그 나라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 때까지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고 그 영향력을 온 땅에 미쳐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가져오실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시적이고, 인격적이며, 물리적인 재림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림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종국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과정을 걸쳐서 완성에 이를 하나님의 나라, 피조계의 미래를 바라며 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이해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크리스천의 신앙과 생활에 큰 그림을 제시한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이해에 근거하여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주 하나님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된 삶이 가능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지성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확신, 성령충만한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낱 그럴듯한 이론으로 그칠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기독교세계관의 본질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동시에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현실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동기가 되어야 한다(최태연, 2011).

2)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기독교 세계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회복하여 이를 실천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오직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구성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최종 계시의 집합체이며 최고의 권위인데 이는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계시도 완성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종결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중보자를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인 구원관을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생 곧 구원을 얻는 다는 것이다. 즉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 믿음’이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의를 성취할 수 없으며 죄 사함을 받는 것 또한 오직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선행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롬 3:10~12, 20),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오직 은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사하심이 풍부하시도다”(시 103:8).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엡 2:8).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임을 의미한다. 이는 거울이 사물의 형체를 반사하듯이 우리가 삶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야함을 가르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되게 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3)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전공학문의 이해

(1) 간호학

간호는 모든 인간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특히 약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는 보다 온전한 생명, 온전한 삶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하여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주디스 앨런 샬리와 알린 밀러의 「돌보는 일을 위해 부름 받음」(Called to Care) 에 의하면 의학과 간호학은 각각 다른 전통에서 시작하였다. 의학은 신체와 정신의 이원론을 토대로 몸을 하나의 대상을 보는 그리스 과학과 근대의 데카르트적 과학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간호학은 고아와 과부, 병자와 가난한자와 나그네를 돌보는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샬리와 밀러는 기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둔 간호를 ‘최대한의 건강(shalom)을 조성하고 곤궁에 처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위로를 줄 목적을 가지고, 죄 아래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전인격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사역’(a ministry of compassionate care for the whole person, in response to God's grace toward a sinful world, which aims to foster optimum health (shalom) and bring comfort in suffering and death for anyone in need) 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간호를 무엇보다도 ‘사역’으로 이해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말씀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를 보살피는 일, 병자를 돌보는 일, 이 모두를 성경은 ‘디아코니아’ 곧 ‘섬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모든 사역이 곧 섬김이고 병자를 돌보는 일도 섬김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다. 간호는 ‘돌봄’, ‘보살핌’의 사역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간호를 전인격에 대한 보살핌(care for the whole person)으로 이해하였다. 간호는 하나의 전인적 인격체인 환자의 고통과 환자가 처한 상황과 그가 가진 세계관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보살핌 인 것이다.

셋째, 간호는 함께 아파하는(compassionate care) 보살핌의 사역이다. 병이나 연약함,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보인 것은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이 마음은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마음이며 직접 사람들의 고통에 관여하는 크리스천 간호사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강영안, 2002).

한편 간호의 주요 개념은 인간, 건강, 간호, 환경이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당시 세계로의 회복상태로서의 건강,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섬김으로서의 간호, 하나님 창조세계로서의 환경으로 돌봄과 간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간호의 대상인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요구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라면,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전인적인 안녕상태를 가져오기 위한 영적 간호는 중요한 간호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Folta는 영적간호는 기독교적 신앙에 기초하여 모든 간호대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도록 돕는 일련의 간호행위를 말하며, 이는 간호대상자의 안녕과 온전함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기독의료인과 간호대상자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격적 만남으로 이

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며(R. H. Folta, 정정숙 역, 1995) Fish와 Shelly는 영적간호를 개인이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찾으며, 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 영적 고통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영적 안녕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즉 영적 간호는 간호의 표준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간호라고 할 수 있다. 간호의 근본을 인간의 선행경험의 축적인 학문에 두었던 것에서 성경으로 그 뿌리는 두는 것이다(Fish and Shelly, 김수지 역).

그러나 환자에 대한 영적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크리스천 간호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진정 도와줄 수 없다. 크리스천 간호사가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을 때 영적 간호를 수행할 만한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물리치료학

물리치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손상(impairment)과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disability)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된 환자를 진단하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중재(intervention)하기 위한 검사를 포함한다. 물리치료 범주 내 검사들은 전반적으로 근골격계(관절가동 범위, 도수근육검사, 관절가동성, 자세 등), 신경계(반사, 호기성능력 또는 지구력, 공기순환, 혈류순환, 호흡 등) 그리고 피부계(검진, 치료, 관리, 피하지방, 비만 케어)검사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학문이 많은 환자들의 회복과 보건의료인 자신에게 끼칠 영향은 무척 크다. 왜냐하면 올바른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학문을 익힌 보건의료인만이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을 중요시하는 보건의료분야 중 특히, 재활치료 관련 전문가는 업무의 특성상 늘 환자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잘못 이해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정작 도움을 주어야 할 환자에게 오히려 독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자신의 종교에 대한 바른 시선과 이해, 성찰은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도 크지만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확립된 올바른 직업관은 현실적으로는 날로 치열해지는 사회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을 이원화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직업 현장(병원, 복지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 중의 어느 하나의 향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측면의 향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이 우선시 되어야하고 병행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건강(health promotion)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백석대학교 보건학부의 교수자로서 책임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우리가 잊기 쉬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학교의 고객인 학생들에게 진실로 다가가려는 마음가짐이다. 학생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보다는 학생을 고객으로 대하는 태도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교수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학교와 학생, 교수 모두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주앞에 항상 겸손하라”, “부족한 자신을 항상 뒤돌아봐라.”, 그리고 “행하는 믿음이 진실이다.”

이러한 자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보건의료인이 가져야 할 필수사항이라 생각된다. 예전에 노교수 한분이 말했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치료(technique)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환자가 진실로 원하는 Long term goal(장기 또는 최종 목표)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환자치료 시 가장 중요한 것은 goal설정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표선정이 잘되면 50% 치료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보건분야에서 가르치는 교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단계별 goal의 설정이라고 생각하며 본 연구자의 5가지 goal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goal이 나의 goal과 같아야 한다. 둘째, 모든 기독교 대학의 목표가 같아야 한다. 셋째, 학교와 내가 쳐다보는 곳이 같아야 한다. 넷째, 나와 학생이 쳐다보는 곳이 같아야 한다. 다섯째, 교과목을 통해 가르치려는 목표가 같아야 한다.

(3) 정보통신학부 정보보호학

정보통신학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토대로 올바른 기독교 인성이 함양된 스마트 융합 시대에 적합한 정보통신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학문 분야이다. 이러한 스마트 융합시대의 적합한 전공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는 현재 모바일 컴퓨팅,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자제어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통신학부의 교육목적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정보통신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공학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학부의 교육목표는 기독교 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자기개발 능력을 갖춘 공학인을 양성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학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융·복합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창출하고 구현할 공학인을 양성한다. 아울러 글로벌 다문화 환경의 정보통신 사회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학인을 양성한다.

정보보호학 전공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의 설립이념에 근거하여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한다. 둘째로 국가 전략 산업 가운데 하나인 정보기술 · 보호기술과 관련된 이론 및 실무기술을 교육함으로써 IT/ITSEC 기술 관리자, IT/ITSEC 연구 개발자를 양성한다. 셋째로 핵심 정보보호 관련 요소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있는 정보보안관리자, 전산시스템 관리자, 마지막으로 컴퓨터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과학적인 범죄 수사인력을 양성한다.

정보통신학부의 각 전공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교수마다 신앙적인 복음을 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상담과 수업시간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공계 특성상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관련된 다양한 적용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을 도출해 나갈 수 있다.

예를들면, IT기반의 전도에 대한 웹사이트와 SNS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공계과정에 대한 기독교적인 새로운 세계관을 통하여 다양한 전도방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글로벌 외식관광학부 외식조리학

세계적인 기독교대학을 세워 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헌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외식관광학부는 백석학원의 정체성을 토대로 올바른 기독교 인성이 함양된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글로벌외식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학문 분야이다.

글로벌외식관광학부의 기본적인 교육목표는 첫째 **전인적 인성 함양**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 정신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전인적 인성을 고루 갖추고, 둘째, **현장실무능력 배양**으로 산업현장에서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공실무능력,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기술 활용 능력,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셋째, **글로벌 역량 강화**로 지구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비즈니스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맞는 글로벌 호텔 외식직무역량과 어학실력과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육성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에 의거 직업교육내실화와 산업체 수요 맞춤형 현장실무중심 NCS기반 교육을 운영하며 현장중심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글로벌외식조리에서는 NCS 분류체계에서 양식조리의 직무는 음식서비스, 식음료조리. 양식조리에서 양식조리능력에 대한 과정을 포함하여 분류체계에 따라 이루고 있으며 조리기술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조리기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전공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양식조리능력과 한식조리능력의 관련된 전반적인 조리관련 교과를 학습할 수 있다.

글로벌외식관광학부에서는 각 전공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속학부 교수들마다 백석학원의 정체성에 맞는 신앙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기법으로 학생들의 상담과 수업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학생들에게 언제나 훌륭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생각과 행동이 바른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특성상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관련된 다양한 NCS교

육과정을 적용하여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맞는 NCS 과정에 대한 기독교적인 새로운 세계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NCS교육과정 모델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복지학

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한 사회 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복지(welfare)란, 'well'과 'fare'의 복합 명사로 이는 'well-being'이란 뜻으로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즉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영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지(福祉)란 인간 생활의 만족스런 이상(理想) 상태를 뜻함과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과 세계관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일반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가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세계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회복지학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에 그 기초를 둔다. 기독교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일관성있게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공유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Creation)와 인간의 타락(Fall),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Redemption), 그리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며 책임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완성(Consummation)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제공하는 실제적인 틀인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관점에서 기독교 사회복지학의 학문의 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사회복지의 목적과 실천 가치를 살펴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섭리의 은총으로 유지되고 있는 전적으로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허락하여 각 개인의 자신의 힘과 자질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인간의 타락 양상은 인간 자신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예수님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적 약자(빈민, 병자, 고아와 과부, 창기, 이방인 등)를 위한 치유와 돌봄의 실천이다. 예수님은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냈으며, 그들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병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가난한 자에게는 영과 육의 양식을 베풀어 줌으로써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에서야 그 나라의 완성 극치에 이른다. 그리스도인이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자연과 사회를 통칭하는 세상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실천하는 데 있다.

4) 융합학문 기반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모델구축

학문은 철학에서 시작해 과학과 수학 등으로 분화되어 끊임없이 세분화되어 오면서, 현대에 와서는 분화가 아니라 융·복합과 통합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대표적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면서 생기는 변화 때문이다. 모든 현상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융합되는 상황에서 학문간의 융합적 접근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교과영역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중심 교육방법 도입 등이 필요하며 교과간 통합, 영역간 통합을 통하여 간학문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암기식과 주입식의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토론, 실험, 현장실습 등의 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선다형이다 단순 암기식 평가 방법을 벗어나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발표 등의 과정중심적이고 실제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DanaE.King.wj, 손진욱 역 (2005). 의료에서의 신앙 및 영성, 하나의학사
- Fish and Shelly. (1980). 영적간호. 김수지 역. 서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 Folta, Ruth H. (1995). 영적간호. 정정숙 역. 서울: 현문사
- 강영안 (2002). 전인 간호의 철학적 기초. 전인간호과학연구소 학술모음집, 233-260.
- 류호준 (2010). 기독교 대학에서의 신앙과 학문. 신임교수를 위한 백석학원 정체성 세미나 자료집, 11-16.
- 류호준 (2011). 일상 하나님 만나기. 서울: SFC.
- 백성정신아카데미 (2010). 개혁주의 5대 표어에 대한 해설. 백성정신아카데미.
- 백성희 (2003). 기독교간호사의 성숙한 신앙과 영적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림 (2010).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영적 간호. 제 8회 백석기독교학술세미나: 보건의료분야와 영성 자료집, 31-51.
- 정회현 (2009). 기독교대학의 전략행정론. 하늘양식
- 최태연 (2011). 왜 기독교대학 교수에게 기독교세계관은 근거인가?, 신앙과 학문 세미나 1 자료집, 91-102.
-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마이클 고힌 (2011). 성경은 드라마다. 김명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폴 마살 (2010). 천국만이 내집은 아닙니다. 김재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필립 안시 (2008). 맥잡는 성경읽기. 임종원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하희승 (2010). 개혁 교회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과정 개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소모임명	기독교 어벤져스 4	소모임 구성원	윤미선,김영은 이수영,이현정
연구 결과의 요약	1. 기독교상담학 기독교 관련 연구 동향: 기독교상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독교상담 분야의 주요 학회 중 하나인 기독교상담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기독교상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였다(2001-2017년). 게재된 논문을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론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2. 물리치료학과 기독교 관련 연구 동향: 현재 의학과 간호학 분야서의 기독교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보건 분야 특히 물리치료학에서 기독교 관련 연구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김지원(2010)의 ‘기독교신앙과 물리치료학의 통합을 위한 방안’과 김지원과 이규일(2012)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윤리와 신앙에 대한 기초조사연구’는 물리치료와 신앙 관련 연구를 보여주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학 기독교 관련 연구 동향: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독교 관련 국내 연구는 기독교 복지와 영성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과 관련된 연구 주제, 한계,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4. 간호학 기독교 관련 연구 동향: 간호 분야에서의 기독교 관련 국내 연구 동향(1996년-2017년)을 정리해 보면 크게 영적 간호 51편(영적간호개념, 영적 안녕, 영적간호 중재와 교육)과 기독교간호 12편(간호선교, 기독교간호대학생, 전인간호)의 관련 연구를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목적 및 필요성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주제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현황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에 본 소모임에서는 각 전공 분야에서 기독교 관련 연구들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관련 연구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학문과 관련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 고찰로 참여자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찾아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의 범위는 국내 학회지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기독교상담 연구 동향: <기독교상담 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 2001-2017

기독교학부 기독교상담학 전공 김영은

<기독교상담의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교회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상담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요섭은 기독교상담을 신자인 내담자의 신앙상태를 분석, 파악하여 어떤 부분이 본질에서 어긋났는지, 약화되었는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고 그 발생한 문제를 상담자가 진단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관직은 기독교상담을 기독교적인 신관, 기독교적인 인간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상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 혹은 시스템들에게 치료적인 맥락 속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과 과정이라고 보았다(재인용, 장동진, 김용태, 2014, 251-252). 이 외에도 오성춘은 기독교상담을 교역자 또는 상담자가 교회의 자원과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중심으로 일반 상담의 원리 및 기법들을 활용하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전인적인 인간회복을 목표로 하는 상담이라고 정의하였다(재인용, 이숙영, 김성희, 2003). 이처럼 기독교상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상담 관련 연구는 계속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기독교상담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떤 한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그 분야의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관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분야의 연구의 향후 방향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준다.

국내 기독교상담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논문은 2003년 이숙영과 김성희의 ‘기독교상담의 연구 경향성 분석’이 있고 2010년 이정숙의 ‘기독교상담의 최신 연구동향’이 있다. 하지만 이숙영과 김성희의 연구는 1900년부터 2001년 사이의 국내 기독교상담 분야의 석사학위 논문 317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정숙의 논문 역시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독교상담 관련 석·박사 논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두 연구는 학위논문 분야에 있어서의 기독교상담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학위논문이 아닌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기독교상담의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장미혜와 정연득의 ‘목회상담학의 최근 연구동향 <목회와 상담> 게재논문 분석’이 있다.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목회상담학회가 발행하는 ‘목회와 상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250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교회사역자의 전문화된 형태의 목회 돌봄을 의미하는 목회상담과 기독교상담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기독교상담을 위주

로 한 학회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상담학회지는 1999년 창립된 기독교상담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기독교상담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로서 여기에 게재된 기독교상담 관련 논문을 살펴보는 것은 목회상담과는 차별화된 기독교상담 분야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상담 분야 연구의 앞으로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상담학회지>에 게재된 기독교상담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기독교상담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01년부터 현재(2017)년까지의 십 칠년간 기독교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상담학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 가운데 ‘기독교상담’을 주요 검색어로 하여 수집된 5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기독교상담과 관련성이 희박한 연구논문 한 편을 제외한 53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연구 주제, 그리고 연구 방법론의 세 측면에서 기독교상담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기독교상담 연구 대상

기독교상담 연구의 대상으로는 이론적 연구로 특정 연구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와 경험연구로 특정한 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이론적 연구라도 특정한 대상을 고려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8%(4)로 나타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3),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3), 그리고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3),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2)로 나타났다. 또한 말기 암환자(1), 교사(1), 신혼종교 신자(1), 동성애자(1), 이종혼자, 가족(1)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각각 2%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독교상담의 연구의 관심이 인간의 발달단계 중 주로 청년기와 노년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독교상담 연구 주제

기독교상담 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기독교상담(이론, 정체성), 기독교상담 이슈(자기수용, 자기), 상담기법에 대한 연구(기도, 유머), 기독교적 접근의 상담효과에 대한 연구(진로집단 프로그램), 기독교 상담자 관련 연구(상담자 정체성, 상담자 교육과정 등), 정신장애(우울증, 공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정신건강 및 성격(성격유형, 종교적 대처), 심리치료 및 상담(이야기치료, 수용전념치료, 정신분석, 가족상담, 교정상담, 호스피스 상담), 위기상담(노인소외, 자살

예방 등), 가족(양육경험, 결혼), 성(성구매), 폭력(성폭력), 한국문화, 기타(동성애, 이종혼) 등의 주제를 볼 수 있었다.

기독교상담 연구 유형

기독교상담학회지에 게재된 기독교상담 관련 연구는 이론적 연구가 70%(37)였으며 경험연구는 30%(16)로 나타났다. 경험연구로는 질적연구가 67%(10), 양적연구가 33%(6)를 이루고 있었다. 경험연구의 게재 연도를 살펴보면 2011년도 이후의 경험연구는 한 편의 양적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질적연구였으며, 2007년도 이전의 경험연구는 모두 양적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연구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을 측정한 실험연구가 있었으며(기독교집단상담, 가족상담), 질적연구는 현상학, 내용분석, 사례연구 등의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었다. 위의 결과를 보면 기독교상담 연구가 이론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상담의 접근방식

기독교상담의 접근방식은 성경적 상담보다는 일반상담의 원리를 기독교적 세계관 및 가치관에 서 조명하고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논의 및 제언>

첫째, 연구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청년기와 노년기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아동기나 중년기에 속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상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인간발달의 단계의 대상을 포함시켜 기독교상담 연구를 인간발달의 스펙트럼 전체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연구의 관심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계층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층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주제의 측면에서는 기독교상담의 방법론이나 모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도나 유머 등의 방법의 활용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여전히 기독교상담의 고유한 상담기법 등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듯하다. 또한 일반 심리상담 기법을 기독교상담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치료나 실존치료 등 매우 제한적인 치료에 대한 검토만이 이루어져, 향후 더 많은 심리치료나 상담이론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또한 상담자 교육이나 훈련 등 기독교상담자 발달관련 주제나 기독교상담자 관련 치료요인 분야의 연구들도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숙영과 김성희의 연구에서 비슷하게 지적된 바 있는데, 기독교상담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발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구 유형의 측면에서 이론연구가 70%, 경험연구가 30%로 이론연구가 경험연구의 두 배 이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연구와 경험연구의 비대칭적 경향은 2003년의 이숙영과 김성희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는데, 기독교상담 연구가 여전히 문헌고찰에 치중하고 있으며,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연구에 소극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실증연구 위주의 일반 상담심리학 분야의 연구와 달리 기독교상담 분야 연구가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일반론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기독교상담 연구에서 질적연구가 급증한 것은 기독교상담 연구가 보다 개별화되고 심층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기독교상담학회지에 게재된 기독교상담 학술논문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위에서 제시한 분류기준 이외에 더 다양하고 심화된 분류기준을 통한 동향 파악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기회가 된다면 그 작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연구를 마감하는 바이다.

물리치료학과 기독교에 대한 연구 동향

보건학부 물리치료학과 이수영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독교 관련 연구 현황은 크게 의료윤리, 윤리교육,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독교병원 및 요양기관 경영, 남북통일, 영적건강 및 돌봄, 노인, 인체 및 동물 실험, 기독교보건의료인, 한의학, 정신의학, 전인치유, 보건의료 선교의 역사 등으로 나누어 볼 때 대체로 의학과 간호학 분야서의 기독교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학과 윤리과목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 분야 특히 물리치료학에서 기독교 관련 연구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윤리교육의 측면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대학이나 임상에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과정에 포함시킨 대학은 전국 몇 개 대학에 그치며 백석대학교와 대학원에서 2년 전부터 교과목 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지원과 이규일(2012)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윤리와 신앙에 대한 기초조사연구’는 물리치료와 신앙 관련 연구를 보여주는 처음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 의료기술 발달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원칙이나 규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윤리는 전문성의 심장이다. 물리치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기술이 중요한 만큼 물리치료사들의 도덕적 책무도 물리치료사들이 환자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료와 효과적으로 일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임상 의료현장에서 신앙에 기초한 재활치료사의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물리

치료사들과 작업치료사들의 윤리교육의 현황 및 필요성,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치료사 윤리에 대한 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본문에서는 Pellegrin(1989)의 윤리교육의 타당성과 Beauchamp와 Childress (1979)의 의료윤리 4가지 원칙을 인용하고 있다. “Pellegrin는 보건의료인들의 윤리교육의 목표를 도덕적으로 선택할 때 윤리적인 분석을 가르치고 일상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인의 가치와 의무를 생각하고 보건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윤리적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였다.” “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김지원과 이규일(2012)의 연구결과

- 2곳의 대학병원과 5곳의 재활병원에 근무하는 150명의 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 치료사 윤리의 필요성

윤리교육을 경험한 치료사는 47.7%가 응답하였고 윤리교육을 받은 시기는 86.6%로 대학 학부과정의 월등이 높았다. 윤리강령을 인식을 하고 있는 치료사는 27.5%에 불과했다.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치료사가 63.3%였으며 치료에 한계를 느낀 치료사는 92.66%였다. 그 한계를 극복한 방법으로 선택, 동료 치료사의 조언이 70.93%, 학술자료 조사가 11.62% 순이었다. 업무에 권태감을 느낀 경험으로 그렇다가 58.72%, 그렇지 않다가 22% 순이었다. 신앙 유무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선 그렇다가 40.37%, 잘 모르겠다가 32.11% 였다.

- 기독교 신앙의 실천

전체 응답자 중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치료사 54명의 응답 결과로 소속된 병원에 기도 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을 하고 있는 치료사는 63%였다. 기독교 신앙의 실천에 대한 문항으로 소명의식이 있는 지에 대해선 7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신앙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였는 지에 대해선 73.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환자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선 83.3%가 긍정적으로 보였고 기독교 세계관적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응답이 62%였다. 물리치료에도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61.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50%가 긍정적이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기독교 관련 연구 동향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이현정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기독교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정리해 보면 크게 기독교 복지와 영성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독교 복지 관련 연구 동향

기독교 복지의 주요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RISS를 포함한 대표적인 논문 데이터 베이스에 ‘사회복지’와 ‘기독교’를 주요 검색어로 논문들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총 62건의 논문들이 검색되었다. 기독교 복지 관련 주요 연구 동향은 크게 기독교 복지의 역사 및 배경에 관한 연구, 기독교복지 혹은 교회사회사업의 분야별 각론에 대한 연구, 교회의 사회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독교복지의 역사 및 배경에 관한 연구는 기독교복지의 역사 혹은 사상과 관련한 연구, 선교·디아코니아·하나님 형상·하나님 나라와 같은 기독교의 특정 영역과 복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복지 혹은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성격적 근거나 역사를 바탕으로 기독교복지 및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이 강조되었다는 의의를 가지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적용과 같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기독교복지 혹은 교회사회사업의 분야별 각론에 대한 연구로 주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 교정복지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각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기독교인 또는 교회라는 주체가 해결하려는 연구로 실천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활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뛰어나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회복지의 실천 주체가 교회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복지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각 대상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기독교적 관점이 제대로 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교회의 사회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교단 혹은 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현황에 관한 연구, 기독교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학문적 객관성을 강화하였다는 의의를 가지는 반면 기독교적 관점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회사회복지활동들에 대한 단순한 실태 파악이나 분류도 적지 않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위의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독교복지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과 더불어 기독교 복지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실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는 추후 연구의 주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박창우(2013)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가 기독교인 및 교회인 경우 또는 성경을 인용하기만 하면 모든 사회복지실천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독교적·성경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성 영역(목적, 주제, 대상, 방법, 자원)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박창우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무늬만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이 아닌 진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사회복지실천으로 그 목적과 방법이 성경적이며, 기도, 찬양, 예배 등

과 같은 형식보다는 클라이언트를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확장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사회복지실천이라고 보았다.

2. 영성 관련 연구 동향

사회복지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 PIE)이라는 전체론적, 통합적, 전인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학문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성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육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의 통합된 인간관에 새로운 이해의 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영성은 과거에 주로 종교학과 신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주요 주제였으나 현재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관련된 휴먼 서비스 분야인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영성 관련 주요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RISS를 포함한 대표적인 논문 데이터 베이스에 ‘사회복지’와 ‘영성’을 주요 검색어로 논문들을 검색하였고 그 결과 총 46건의 논문들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연구들은 크게 이론 연구, 영성관련 측정 도구 관련 연구, 특정 대상 클라이언트 집단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의 관계에서의 영성의 영향력 분석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영성 관련 이론 연구들에서는 영성에 대한 개념, 기존 사회복지 이론과의 적합성 및 유용성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어 왔다. 영성은 종교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어 온 경우가 많고 영성은 종교적 의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종교를 초월하는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학자마다 영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영성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공고히 하고 역경 극복의 잠재력과 내적 강인함 등의 속성을 가지는 인간 내부의 성스러운 본성으로 이해되고 있고(김도희, 2016),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차원을 초월한 역경에의 반응 및 성장, 자신에 대한 깨달음, 삶의 의미와 가치 추구 등과 같은 개념들을 동반하고 있다.

둘째, 영성관련 측정 도구 연구들로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의 영적안녕 척도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영적안녕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인간이 환경과의 조화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영적안녕과 영성은 별개의 개념으로 영성 측정의 도구로 영적안녕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외국의 영적 안녕 척도가 우리나라의 맥락 안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 (오윤수·정현태, 2013).

셋째, 특정 대상 클라이언트 집단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의 관계에서의 영성의 영향력 분석 연구들에서 영성은 다양한 대상에게 있어 삶의 여러 측면들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대상별로는 노인, 사회복지기관종사자, 청소년, 중년남성과 성인, 정신장애인, 빈곤층 여성 한부모와 같은 다양한 대상에게 있어 영성 변인이 연구되었고, 영성은 자살, 우울과 불안, 알코올 중독, 스트레스, 신체건강, 양육 부담, 자아통합감, 대인관계 등과 같은 문제와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영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성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영성 관련 연구의 양적인 증가가 필요하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영성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 속에서 적용하여 효과성을 입증한 사례들에 대한 분석 연구가 전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영성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치료와 개입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실증적 접근을 강조하는 학문적 사조의 영향으로 영성 관련 연구에서 영성 관련 측정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적 안녕 척도는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적·상황적 맥락과 맞는 영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 분야에서의 기독교 관련 연구 동향

보건학부 간호학전공 윤미선

1. 간호분야의 기독교 관련 국내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으로 통합적인 존재로써 각 차원의 건강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간호과학은 인간의 건강을 돕는 돌봄이 학문이며, 전인적 존재인 인간을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즉 전인적으로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적 안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적안녕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인 영적 안녕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인 영적 안녕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 자신이 영적으로 안녕해야 함은 물론, 자신이 간호대상자에게 치료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영적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간호에서 기독교 관련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현재 국내 대학의 간호학과 중 기독교대학을 표방하는 학교는 약 10%에 달한다고 하였으며(이정규, 2009), 본교 또한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며, 지식이 아닌 예수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시도중 하나로 본 소모임 연구활동 등은 학문과 교육 영역에서 현실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을 위한 작은 태동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2017년 동안간호 분야에서의 기독교 관련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간호분야의 기독교관련 연구의 대상과 주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분야의 기독교 관련 연구의 방향과 주제 설정 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간호분야의 기독교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결과

간호 분야에서의 기독교 관련 국내 연구 동향(1996년-2017년)을 정리해 보면 크게 영적 간호(영적간호개념, 환자의 영적 안녕,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영적 안녕, 영적간호 중재와 교육)와 기독교간호(간호선교, 기독교간호대학생, 전인간호)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영적 간호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대상>

기독교 간호의 주요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RISS를 포함한 대표적인 논문 데이터 베이스에 ‘영적 간호’를 주요 검색어로 수집된 논문들 중 관련성이 희박한 논문을 제외하고 총 51건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측면에서 영적간호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적 간호 연구 대상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 ① 간호 개념
- ② 암환자, 호스피스환자, 재가 비암환자,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후보호자, (재가,여성, 농촌)노인, 청소년, 알콜의존 환자, 여고생, 성인 여성, 중년 여성, 임부, 혈액투석환자
- ③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영적 간호 연구 주제

영적 간호 연구 주제는 크게 4분류로 영적간호개념 5편, 환자의 영적 안녕 26편,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영적 안녕 11편, 영적간호 중재와 교육 9편이 분류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연구된 구체적인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a. 영적간호개념

영적 간호개념 연구 주제는 영적 간호 개념 분석 연구 3편, 목회 간호 연구 1편, 영성관련 연구동향 분석 1편이 연구되었다.

b. 환자의 영적 안녕

환자의 영적 안녕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아 26편이었으며, 연구 주제는 다양한 대상자(암환자, 호스피스환자, 재가 비암환자,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후보호자, (재가,여성, 농촌)노인, 청소년, 알콜의존 환자, 여고생, 성인 여성, 중년 여성, 임부, 혈액투석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파악한 역구들이 진행되었다.

- ① 영적 안녕 상태
- ② 영적 간호요구도
- ③ 영적 안녕이 다양한 변인(삶의 질,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 ④ 다양한 연구 변인(자존감, 특성 분노, 우울, 가족기능, 대인관계,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 ⑤ 다양한 연구 변인(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 우울, 자살의도, 삶의 목적, 자아개념, 존중감, 자살위험성, 가족기능, 의사소통, 죽음 불안, 갱년기 증상, 주관적 건강상태, 자아힘돋우기, 희망,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초월)과의 관계

c.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영적 안녕

간호학생의 영적 안녕 연구는 7편이며, 주제는 영적간호인지,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 정신건강영향,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간호사의 영적 안녕 연구는 4편이며, 주제는 영적안녕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 삶의 의미와 영적 간호수행 등을 변수로 하여 진행되었다.

d. 영적간호 중재와 교육

영적간호 중재와 교육을 주제로한 연구는 9편이 진행되었다. 영적 간호중재 연구는 주제는 5편이며 영적간호중재가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안녕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의 영적 간호 경험 분석, 간호사의 영적안녕과 영적간호 중재와의 관계, 또래생명지킴이훈련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실존적 영적안녕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간호사의 “영적간호모듈”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적용 효과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영적간호 교육 연구는 4편이며, 교육이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영적간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우리나라 일부 간호교육기관의 영적간호 교육에 관한 연구, 간호대학생의 영적 간호 실습준비를 위한 GRS 모델 적용 등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의 연구결과 중 영적간호를 주제로 한 연구들의 결과를 간략히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안녕과 영적간호수행에 대한 연구(윤매옥, 2009)결과,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안녕은 중상수준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영적간호수행은 중하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영적안녕과 영적간호수행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안녕에서는 학력, 신앙생활기간, 예배참여정도, 종교가 삶에 미치는 정도, 믿음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간호수행에서는 연령, 결혼, 학력, 간호사역할, 임상경력, 신앙생활기간, 예배참여정도, 종교가 삶에 미치는 정도, 믿음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영적안녕과 영적 간호수행 간에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하위영역인 종교적 안녕, 실존적 안녕각각에서도 영적

간호수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며, 신앙적인 삶을 권장하고, 예배참여와 개인의 믿음성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윤매옥, 2009)고 하였다.

말기환자를 돌보는 기독교간호사의 삶의 의미와 영적간호수행 연구(윤매옥, 2011)결과, 대상자의 삶의 의미와 영적간호수행과의 관계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삶의 의미와 영적 간호수행의 하위영역인 의미에 대한 영적간호수행, 사랑에 대한 영적간호수행, 용서에 대한 영적간호수행 모두에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말기환자를 위한 영적간호수행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안위를 도모하며 환자와 간호제공자의 삶의 의미와 영적 안녕을 높일 수 있는 중재이므로 기독교간호사의 삶의 의미와 영적간호수행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액션러닝에 기반을 둔 영적간호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영적요구, 영적안녕 그리고 영적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홍세훈, 2016)결과를 살펴보면, 16회에 걸친 액션러닝 기반 영적간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영적요구를 감소시키고, 영적안녕과 영적간호역량을 증진시켰다. 아울러 총체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액션러닝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홍세훈, 2016).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가 영적안녕 상태와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이현주, 2004)결과, 종교와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영적안녕 상태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영적안녕 상태 간에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과정을 경험하는 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에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고려해본다면 영적간호 교육에서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간호제공자의 영적안녕 상태와 죽음에 대해 인식하는 태도 또한 교육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2) 기독교 간호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대상>

기독교 간호의 주요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RISS를 포함한 대표적인 논문 데이터 베이스에 ‘기독교 간호’를 주요 검색어로 수집된 논문들 중 관련성이 희박한 논문을 제외하고 총 11건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독교간호 관련 연구는 주제별로 보면 간호선교 3편, 영성 체험 3편, 전인 간호 2편, 기독교 세계관 3편 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측면에서 기독교 간호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독교 간호 연구 대상

선교사, 암환자, 간호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기독교 간호 연구 주제

개념 분석, 기독교 세계관 적용 실천, 전인치유 사역, 간호 선교 사역과 경험, 영성 체험, 교구간호에 대한 인식 등이 주제로 연구되었다.

참고문헌

- 강성례 (2006). 영적간호의 개념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5), 803-812.
- 김도희 (2016). 사회복지실천과 영성에 관한 고찰-마음챙김과 강점관점 모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1), 79-103.
- 김명자, 조계화 (2001). 고통(suffering)과 영적접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 (2),121-130.
- 김정남 (1996). 목회간호의 현황 및 전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0(1), 6-11.
- 김정남, 송미옥(2003).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 안녕 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7(2), 255-265.
- 김지원 (2010). 기독교신앙과 물리치료학의 통합을 위한 방안. *진리논단*, 17, 297-309.
- 김지원 (2011). 기독교보건의료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색. *전인건강학회지*, 1(1), 1-12.
- 김지원 (2012).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윤리과목 개발. *기독교보건학회 학술대회*, 67-80.
- 김지원 (2012).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윤리와 신앙에 대한 기초조사연구. *전인건강학회지*, 2(1), 1-11.
- 김용환, 최금주, 김승돈 (2009). 한국에서의 영성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학문적 함의. *상담학연구*, 10(2), 813-829.
- 박노권 (2014). 기독교 상담에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상담학회지*, 25(1), 93-115.
- 이종은, 김순례 (2012). 재가 비암 환자의 생의 말기 단계별 신체적, 영적 간호요구도 -간호요구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2), 127-133.
- 박진성 (2017). 기독교인 내담자의 상담 성과 경험 과정에 대한 연구. *기독교상담학회지*, 28(1), 71-102.
- 박창우 (2013).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성영역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6, 671-694.

- 오윤수, 정현태 (2013). 영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소고: 개념에 대한 분석 중심. **영성과 사회복지**, 1, 107-123.
- 이명숙, 김성희 (2003). 기독교상담의 연구 경향성 분석. **상담학연구**, 4(2), 295-307
- 이주열 (1998). 보건분야에서 윤리교육.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5(1), 67-77.
- 장동진, 김용태 (2014). 기독교상담에 대한 기독교 상담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249-277.
- 장미혜, 정연득 (2017). 목회상담학의 최근 연구동향: <목회와 상담> 게재논문 분석 (2001-2016). **목회와 상담**, 28(0), 269-300.
- 장수경 (1991). 물리치료와 직업윤리와 관계된 교육현황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3(1), 91-96.
- 조난숙 (2012). 기독교상담 모델의 자기와 자기병리에 대한 관점비교와 통합방향. **기독교상담학회지**, 23(2), 175-201.
- 최상순, 김정숙 (1998). 간호학생의 영적안녕, 희망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331-342.
- 최상순, 허혜경 (1996). 임상간호사의 영적안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2), 109-120.
- Pellegrino ED (1989). Teaching medical ethics: Some persistent questions and some response, **Academic Medicine**, 64, 701-703.
- Beaucharmp TG, Childress CE (1979). Spirit, science, and health: How the spiritual mind fuels physical wellness. Connecticut, Praeger, 207-216.

소모임명	생명사랑 베리타스	소모임 구성원	윤순영, 민신흥, 유영미
연구 결과의 요약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를 함께 읽고 논의하는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 책은 성경, 그 중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설파하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크게 세 개의 part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으라>에서는 바울의 주장을 오늘날의 문화적인 맥락에 맞춰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상, 곧 결혼이란 창조주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비쳐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2장<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바울의 논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3장<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에서는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행동, 그리고 로맨틱한 열정과 언약적인 헌신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4장<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에서는 혼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되새겨보게 한다. 5장<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다>는 힘을 모아 그 여정을 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기초적인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6장<‘다름’의 복을 누리라>에서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이 상대방의 성적인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더 성숙해져 가는 현장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관해 소개되어 있다. 7장<하나님과 하나 되는 싱글은 아름답다>는 싱글들로 하여금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해서 독신 생활을 규모있게 꾸려 가고 결혼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8장<성생활은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에서는 섹스를 주제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싱글과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결혼 전에 배우자 될 사람과 같이 읽고 대화한다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결혼 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 점은 각자 결혼 생활을 성찰하는 주요한 시사점이 되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살며 앞으로 결혼을 할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혼전 성관계나 동거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결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나눔으로써 그들에게도 성경적 결혼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기독교 소모임을 통해 성경적 결혼관과 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석정신아카데미에 감사드린다.		

1. 들어가는 말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은 프롤로그에서 작가가 밝혔듯이 결혼한 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결혼한 이들을 위한다는 의미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도전인 사람들, 결혼이라는 ‘불같은 시험’에 짓눌리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들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는 커플과 싱글 모두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관을 제시해주어 커플들에게는 부부 생활을 망칠 수도 있는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 주고, 미혼 남녀들에게는 결혼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거나 과도하게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도록 하고 더불어 저마다 더 나은 배우자상을 그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이다.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이 책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이유는 이 책의 기초중의 기초가 성경이라는 것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설파하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 이 책의 뼈대를 이룬다. 사도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도 풍성하고 온전하지만 결혼 문제를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 본문인 창세기 2장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크게 세 개의 part로 나뉘어 첫 번째, ‘결혼은 현실이다’ 두 번째, ‘결혼은 성장이다’ 세 번째, ‘결혼은 하나 됨이다’로 구분하여 진술되고 있다. part 1. ‘결혼은 현실이다’는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으라>에서는 바울의 주장을 오늘날의 문화적인 맥락에 맞춰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상, 곧 결혼이란 창조주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비쳐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복음은 결혼의 본질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며 결혼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2장<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바울의 논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손길을 통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시고 결혼을 망치는 주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에 맞설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part 2인 ‘결혼은 성장이다’는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장<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에서는 결혼의 핵심이자 전부인 이른바 ‘사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는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행동, 그리고 로맨틱한 열정과 언약적인 헌신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4장<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에서는 혼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되새겨보게 한다. 결혼은 영적으로 친구가 된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존재로 변해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의 건너편에 새롭고 더 심오한 차원의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된다. 5장<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다>는 힘을 모아 그 여정을 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기초적인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6장<‘다름’의 복을 누리라>에서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이 상대방의 성적인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더 성숙해져 가는 현장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관해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 part 3 ‘결혼은 하나 됨

이다’는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장<하나님과 하나 되는 싱글은 아름답다>는 싱글들로 하여금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해서 독신 생활을 규모있게 꾸려 가고 결혼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8장<성생활은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에서는 섹스를 주제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싱글과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각 장들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본론

Part 1 결혼은 현실이다

1장.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으라

결혼에는 다양한 양상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오직 감정적인 면만 있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결혼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고단한 과정이기도 하다. 가슴 벅찬 환희와 샘솟는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피와 땀, 눈물, 참담한 패배와 상처뿐인 승리를 뜻하기도 한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첫 번째 결혼을 주재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경이로운 일인 것이다. 한없이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근사한 일, 이것이 성경의 결혼관이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결혼의 정신을 드높이며 문화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이다. 결혼에 대한 경계심과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문화 속에,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젊은이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미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조차도 성적으로 파분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싱글로 외롭게 살던가,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살던가’ 이 두 가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 결혼과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만남 사이의 중간지점(동거)을 오가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젊은이들은 결혼생활이 십중팔구 불행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 편견은 결혼의 50퍼센트는 이혼으로 마무리 되며 나머지 절반도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상당수 이르는 현실이 그 근거가 된다. 이로 인해 결혼 전 동거를 통해 상대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과 가정에 내재된 문제점은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다.

먼저 결혼이 주는 엄청난 유익들이 있다. 실제 혼전 동거 커플들은 결혼한 뒤에 결별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전 동거를 선택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후 여유가 있을 때 결혼하겠다는 의도인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결혼이 가져오는 놀라운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알려준다.

결혼한 남성의 경우 비슷한 교육수준과 경력을 가진 이들보다 10~40퍼센트 정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사실이다. 결혼한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결혼은 절망적 상황이나 질병 등 어려움을 무난히 처리하도록 돕는 ‘충격흡수장치’를 제공한다.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부는 서로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자기훈련을 습득하게 된다. 결혼한 이들은 서로를 위해 눈앞의 즐거움을 미루고 저금이나 투자를 하게 된다. 그 어느 것도 결혼처럼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진 많은 싱글들은 행복한 결혼의 가능성을 한없이 낮춰 잡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많은 조사연구에서 당장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5년 안에 행복해 진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의 생활 만족도가 싱글이나 이혼자, 또는 동거 상태인 이들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증거들이 무수히 많다. 아울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보다 두세 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결혼한다는 것과 결혼한 부모와 더불어 자라는 것이 행복의 크기를 부풀리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혼이 인생의 중심에 서지 않았던 문명이나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누구에게나 결혼을 바라는 심오하고도 풍부한 갈망이 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삶의 모든 국면이 다 그렇듯, 결혼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말았다고 한다. 지나치게 로맨틱하거나 이상적인 결혼관을 가졌다면 인생에 미치는 죄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결혼 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결혼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서 5장 31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않는 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사하며 심오한 진리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희생적으로 섬겨 주신 덕에 거룩한 자녀들은 그분과 깊이 연합하게 되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이 결혼관계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결혼을 제대로 살아내는 열쇠라고 보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배우자를 대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예수님의 복음과 결혼은 서로를 해석하는 통로가 된다. 결혼제도를 세우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벌써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정하고 계셨다. 결혼은 복음을 통해 심령이 속속들이 새로워지며 바닥을 헤매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주요한 수단이다. 결혼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멋진 까닭은 한없이 아픈 동시에 그것이 무한정 근사한 복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맞는 힘든 시기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히 체험하게 해준다. 원만한 부부관계 역시 사람을 바꾸는 거룩한 사랑을 사무치게 경험하는 마당이 된다.

2장.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엡 5:21). 교만하고 방탕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남들을 섬긴다는 것이다. 사도는 앞으로 무엇을 말하든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전제로 한다고 못 박는다. 서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셔서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이제 그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또한 종처럼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운다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한 일이다.

문제의 근원인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죄에서 비롯되었다. 결혼이 주는 행복은 예수님이 저마다에게 해주셨던 일을 본받아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보다 먼저 생각할 때만 느낄 수 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상처는 은혜가 활동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이 상처가 자신에게만 몰두하도록 몰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주님의 은혜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하며 결혼생활이 나날이 성숙해 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은 상처와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질이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돌아보는 데 힘을 기울인다면 보다 풍성하고 근사한 부부관계를 가꿀 수 있을 것이다.

부부생활에 적용해야 할 기독교적인 원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부족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가 모두 채워질 것이고 또 지금도 충족된 상태이므로 배우자를 구세주로 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한다. 오로지 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서슴없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남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결혼을 통해 채우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배우자를 섬기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큼 큰 영적인 공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소생시켰으므로 이제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사랑으로 배우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배우자를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결혼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배우자에게 비현실적으로 기대려는 마음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은 물론 이제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학생들에게도 결혼에 대한 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Part 2 결혼은 성장이다

3장.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다

성경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받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진다.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기꺼이 잃을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자유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 소중한 시간과 감정 재물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흔쾌하게 상대를 위해 쓸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결혼 서약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성경은 현대 문화와는 판이하게 자신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라고 가르친다. 사랑은 감정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개인도, 가족도 아닌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보고 감정과 의무, 열정과 약속이 단단히 결합된 결혼관을 제시한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의 중심에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언약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특별한 유대를 만들어낸다. 그런 결합은 법률적이거나 사업적인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이다. 동시에 감정과 애정에 기초한 관계보다 훨씬 견고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무조건적이다. 언약은 이처럼 사랑과 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관계를 가리킨다.

현대 문화는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행위의 토대라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행위를 변함없이 계속해 나가면 사랑하는 감정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사실에 가깝다. 결국 감정 아니면 의무라는 식으로 단순한 노리로 사랑을 구분해서는 안된다. 결혼한 남녀의 사랑이란 둘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생적이고 복합적인 혼합체와 같다. 그렇지만 감정과 행동이라는 두 요소 가운데 통제 가능한 영역은 후자 쪽임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이어 가겠노라고 약속할 수 있는 것 또한 사랑의 행동뿐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면 ‘참으로 매력적이니 나를 내어 주어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고뇌 가운데서 우리가 당신을 부인하고 포기해버리고 배신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신 주님처럼,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결혼식에서 했던 약속과 맹세를 이행하며 배우자를 사랑해야한다는 것이다.

4장.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이다

3장까지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 4장부터는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성격의 답은 결혼이 곧 우정이라는 원리에서 출발한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하나님은 ‘돕는 배필’, 곧 친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정이란 무엇인가? 성경, 특히 잠언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우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친구의 으뜸가는 자질은 한결같은이다. 승승장구할 때나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도 늘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진실한 친구이다. 또한 투명성과 공정성도 우정의 핵심 요소이다. 진실한 친구들은 서로를 세워주며 애정 어린 지지를 보내지만 때때로 드러내 놓고 꾸짖기도 하는 존재인 것이다. 세 번째의 특성은 ‘같은 감정’, 곧 공감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와 같은 대상을 향한 갈망을 품은 이들에게 우정이 싹튼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일이 에로틱한 사랑이라면, 우정은 둘이 나란히 서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자극을 받고 황홀해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신약으로 들어가면 우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겹이 더해진다. 우정은 오로지 동일한 비전과 열정을 공유할 때만

가능하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가운데 차츰 깊어가는 '하나 됨'이며 그 중에서도 영적인 우정은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여정이다. 목적 자체가 지극히 고상하고 심원하지만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서로 도와 장차 영광스러운 자아, 곧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바라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그리고 장차 얻게 될 티도 흠도 없는 거룩한 인성인 것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정이 둘의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5장. 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결혼생활을 해나가며 상대방의 결점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콩깍지는 떨어져 나간다. 대단치 않게 여겼던 사소한 단점들이 점점 크게 다가오면서 결국 상대방을 절대로 몰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된다. 이쯤 되면 파트너가 너무 낯설어 보이기까지 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결혼의 목적이 '소울메이트'를 얻는 데 있었다면, 커다란 혼란이 생길 것이다. 부부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엄청난 시간투자가 필요한데 배우자 역시 이편을 몹시 낯설어 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결점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프고 괴로운 마음은 더욱 가중된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 가는 여정인 영적인 동반자로서 우정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면 또는 죄와 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는 새사람이 되도록 서로 돕는 부부의 삶을 기대했다면 실제로 '낯선'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소매를 걷어 붙이고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능력을 기반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상투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뼈아픈 실패를 겪기 전까지는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결혼에는 마땅히 받아 써야 할 몇 가지 힘, 즉 진리(진실)의 힘, 사랑의 힘, 은혜의 힘이 내장되어 있다. 이것들을 사용하면 배우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힘을 모아 한 길로 도울 수 있고 이러한 힘들은 특히 결혼한 상대가 남이나 다름없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에 가장 탁월하게 작동된다.

결혼을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로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은 그 안에 내재된 속성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진실의 힘', 즉 스스로의 실체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의 예리하고 폭넓은 비판 앞에서 누구든지 기가 질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마음의 죄를 폭로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배우자가 아니라 결혼 그 자체임을 알아야 한다. 결혼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는 자화상을 들이대고 목덜미를 잡아채서 똑바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결혼이다. 이처럼 결혼이 가져다주는 진실의 힘은 분명 귀한 선물이지만 받기가 쉽지 않은 선물이기도 하다. 배우자의 이러저런 결

점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이것저것이 잘못이란 지적을 자주 들으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의 완성된 미래상을 떠올리면서 ‘더 나은 배우자 감’의 실체를 명확히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곁에 있는 남편, 또는 아내가 ‘보다 나은 그 사람’이라는 뜻이다. 완벽한 배우자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지만 이미 결혼한 짝에게서 그 실재를 구해야한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힘이다. 우리 안에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던 타인과 나 자신의 평가들을 단번에 뒤집어엎을 존재가 사랑과 결혼을 통해 나의 삶에 들어온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 과거에 형성되었던 부정적인 평가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획득할 수 있다. 남편, 또는 아내의 사랑과 지지에는 깊고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추하다고 해도 배우자만 예쁘다고 해주면 정말 예쁘다고 여기지는 것처럼 배우자를 통해 새로운 평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온갖 상처를 치유하고 저마다 지닌 남다른 아름다움과 가치를 확신하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 이는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능력이다. 이를 위해 사랑은 반드시 말로써 표현되어야 한다. “물론 사랑하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구체적이고, 늘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익혀야 한다. 파트너의 장점과 은사를 분별해서 솔직한 인정과 칭찬, 감사를 전해야 하며 거칠고 비난 섞인 말을 삼가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사랑이 빠진 진실은 부부가 하나 되는 일의 휘방꾼이며 진실이 결여된 사랑은 하나라는 환상을 갖게 하지만 사실상 성장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데 이러할 때에 해법은 은혜뿐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용서와 회개라는 결혼 생활에 필수적인 두 가지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잘 늙우치고 잘 용서해야만 진실과 사랑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이다.

6장. ‘다름’의 복을 누리라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 애초에 세우셨던 선한 뜻이 무엇이고, 남자와 여자가 그 것을 어떻게 망가뜨렸으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성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성경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과 동시에 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핵심적이며 전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준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똑같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문명과 문화를 세우는 권한을 행사해야한다는 의미이며 또한 상호보완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타락을 통해 곧바로 남녀의 연합에 재앙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위기가 돌변해서 책임전가와 손가락질, 비난이 난무한다. 서로 다른 속성은 온전함을 이루는 재료가 되기보다는 억압과 착취의 빌미가 되었다.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성의 자세는 맹목적인 집착으로 변질되고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남성의 태도 역시 이기적인 욕정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지로 바뀌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본래 존재했던 연합과 사랑이 회복되는 과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명령을 지닌 여성의 평등성을 강조하셨으며 태초에 나마와 여자에게 각각 부여하셨던 '섬기는 리더'와 '예절-조력자'의 역할을 되찾게 하였다. 하나님이 여자를 특별히 '돕는 배필'로 부르셨듯이, 남자와 여자에게 제각기 다른 사명과 서로 다른 능력을 주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적 성향의 영향도 받겠지만 그러한 물리적 차이에 따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자질에도 남녀 간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해결하고 이성간의 차이를 넘어 온전히 서로를 끌어안게 한다. 성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리만치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창세기가 설명하듯, 남성과 여성은 서로 철저히 다르게 다르지만 둘이 모여야 완성되는 나머지 '반쪽'이기 때문이다.

Part 3 결혼은 하나 됨이다

7장. 하나님과 하나되는 싱글은 아름답다

독신은 잘못된 선택인가? 결혼을 하든지 안하든지 둘 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며 어느 경우에도 참다운 배우자는 그리스도이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결혼을 해야 완전히 자기실현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었다. 예수님과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충실하였다.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독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조건이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결혼보다 낫다고 하였고 기독교는 미망인이 억지로 재혼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대조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디즈니 스타일의 대중문화 내러티브의 영향으로 완벽한 짝을 찾아 천상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혼이며 여기에는 로맨스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결혼은 사회적 안정, 자아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맺은 지극한 사랑과 관계의 연합을 인간 수준에서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자 맛보기이다. 즉, 결혼은 실재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않는다면 결혼에서도 온갖 병적인 현상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싱글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결혼보다 앞서고 독신을 유지하는 것보다 앞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우자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과 기쁨, 평화, 소망 같은 성품들이 눈에 띄게 자라고 만족을 가져올 것이고 현대인들처럼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만족을 얻지 못 할 것이다. 텀케러는 결혼 상대를 찾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새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거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등 몰입이 필요

한 상황이거나 삶의 중대한 변화를 겪는 중이라면 그런 때는 결혼을 추구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서적 부담이 큰 삶의 한 굵이를 돌아섰을 때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그런 때는 결혼을 염두에 둔 만남이나 데이트가 아닌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우정이 필요하다.

둘째, 독신의 은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독신의 은사는 결혼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가 완전히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데, 결혼에 무관심한 이유가 이기적이거나 우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성을 무시하는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라 삶과 사역에서 넉넉한 결실을 거두기 위함임을 의미한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결혼 문제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십대들은 상대방을 충족시킬 수 없는 정서적, 신체적 욕구를 자극해서는 안 되고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염두에 둔 만남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빨리 인식해야 한다. 성경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결혼 전까지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같은 신앙인이자 그의 근본적인 인생관의 골자는 알고 시작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혼이 주는 친밀감의 정수는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신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상대방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데 있다. 같은 신앙인이자 서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종교가 다르다면 그의 심중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넷째, 가장 포괄적인 면에서 매력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뜨거운 열정을 느끼거든 그와 꼭 결혼하라는 말이다. 성적인 열정은 반드시 배우자를 향해야 하며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끌리는 느낌도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그저 신체적인 면을 넘어서는 더 깊은 매력(성품, 소명, 미래상, 가치관 등)에서 출발한다면 감정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다섯째, 너무 빨리 달아오르지 않도록 조심하라. 상대방의 됴됨이를 찬찬히 살펴볼 시간을 가져야지 현대의 문화처럼 로맨틱한 감정이 든다고 바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평생 지속되는 사랑에 필요한 것은 감정만이 아니다. 살다보면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서로 희생하며 헌신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 따라서 데이트 초기에 자칫 깊은 사랑으로 착각할 만큼 강력한 감정에 휩쓸릴 수 있고 이런 감정은 나중에 분노와 환멸로 이어져 상대방의 장점도 놓쳐 버리는 일이 흔하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성경공부, 섬김과 봉사, 예배에 참석하면서 서로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좋다. 감정에 눈이 멀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불같이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는 것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혼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섯째, 공동체의 권면을 대폭 받아들여서 충실히 따르라. 결혼은 개인적으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개인의 시각은 종종 왜곡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친척, 부모님 등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8장. 성생활은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은 욕구인 측면도 있으나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처럼 쉽게 채울 수 있는 욕구는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을 결정적인 형태의 자기표현, 즉 자아를 실현하거나 발견하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성교의 일차적인 목적이 개인적인 성취나 자아실현이며 인간은 누구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성욕은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와는 다른 길잡이가 필요한 욕망이다. 성교는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속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교는 원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데 현대인들의 타락한 마음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로 성교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성경은 성관계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 결혼은 두 사람의 연합이 너무도 깊고 오묘하여 사실상 새로운 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어져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독립성은 상당 부분 잃게 되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법률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성관계가 그 수단이 된다. 성경은 상대와 정서적, 인격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하나가 될 의사가 없다면 신체적으로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결혼 관계에 묶여 총체적으로 약함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자신의 별거벗은 몸이나 약함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성관계는 자신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이며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지정해 주신 방식이다. 이렇듯 성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성행위에 대해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성행위는 생식기 활동일 뿐이라는 통념과 달리 자기노출과 자기 헌신의 독특한 양식으로 전 인격을 쏟아 붓고 표현하는 행위라고 말이다. 온 생명을 바쳐 헌신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몸을 주는 것은 몹시 어울리지 않으며 소화시킬 뜻이 없는 음식의 맛만 보는 행위이다. 성이 이렇게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수단이라면 설령 그것이 남용이나 오용된다하더라도 상대와 깊이 연결되도록 이끌릴 수밖에 없다. 성적인 격정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언제나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하기 십상이다. 합법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도 금방 상대방이 이편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는 듯 착각할 만큼 부부 같은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결혼을 떠난 성관계는 상대에게 신뢰하고 헌신하겠다는 능력을 떨어트리는 퇴행적 결과를 가져온다.

성관계는 전폭적인 헌신의 관계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데서 오는 환희를 암시하는 예표이다. 지상에서 이뤄지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더없이 황홀한 사랑도 결국은 장차 이르게 될 실체를 가늠하게 하는 조그만 힌트에 지나지 않는다. 독신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싱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결혼에 목매지도 않고 결혼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야 한다.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아름다운 용모나 넉넉한 재산과 같은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족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독신들에게 열등감과 무력감을 심어 주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가정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필요하다. 성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저마다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있다. 살아가면서 성적 유혹이 있을 때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유혹이 있을 경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주목하고 내면의 목소리 중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는 것이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만 성을 누려야 한다. 바울은 당시 사회의 시각과 달리 약한 아내들에게

도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성관계를 갖는 것이 부부가 더불어 사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마음도 없는데 몸만으로 싫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물을 기꺼이 주라고 한다. 성관계에서 특별한 오르가즘이 없더라도 다만 하나가 되는 경외감, 경이감, 안전감, 행복감만으로도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 한다. 팀켈러는 부부의 결혼 생활과 성의 관계를 엔진에 기름을 칠하는 것으로 비유한다. 결혼에서 행복하고 사랑스런 성관계가 없다면 결혼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마찰과 분노와 원망, 냉담한 분위기와 실망으로 이어지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부부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성적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과 그 안에 있는 기꺼운 자기 헌신과 사랑의 기쁨을 반영한다. 또한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누릴 사랑의 관계,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혼이라는 집을 떠받치는 탄탄한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축하게 젖어 온갖 종류의 사랑이 자랄 수 있는 발이 되도록 하자.

3. 맺음말

part 1에서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수정하여 주고 있으며 현대 사회가 강조하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결혼을 위해 자기가 그려놓은 딱 맞는 배우자는 결코 없다는 것이다. 결혼 후에 싸우기라도 하면 상대방을 배우자로 잘못 골랐나 하는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당연하고 뜨거운 감정이 사라지더라도 결혼은 언약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언약에 기초하여 헌신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감정은 변하는 것이어서 다시 뜨거워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part 2에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사랑은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부부가 다름을 인정하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설명했다. part 3에서는 싱글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조하고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책을 읽으며 결혼 전에 배우자 될 사람과 같이 읽고 대화한다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에서는 결혼에 대해 매우 왜곡된 생각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로맨스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여자의 외모와 남자의 돈을 교환하는 것이 결혼인양 보기도 한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미리 연습하고 경험하는 장이라고 한다. 상품화되고 너무 쾌락적 성에 치우친 결혼관에 대해 대항하고 성경적 결혼관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기독교 소모임이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순모임이나 청년부 소모임 등에서 부부가 사는 실제 모임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려는 노력들을 직접 보고 접하면서 성경적 결혼관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결혼 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 점은 각자 결혼 생활을 성찰하는 주요한 시사점이 되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살며 앞으로 결혼을 할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혼전 성관계나 동거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결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나눔으로써 그들에게도 성경적 결혼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가 앞에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동거를 하는 남녀 대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동거를 하며 임신과 낙태, 헤어짐으로 인해 상처받은 쪽이 저지르는 자살 등으로 신체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1학년 첫 학기에 이 책을 가지고 독서클럽을 하면서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 준비하거나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기독교 소모임을 통해 성경적 결혼관과 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석정신아카데미에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두란노. 2014.

소모임명	한국경제 현상에 대한 성경적 대안	소모임 구성원	이경락, 문성현, 신성호
연구 결과의 요약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인류는 배고픔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탐심과 야욕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가들과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따라서 인류가 탐심의 바벨탑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모든 인간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으며, 그 해답은 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해답은 언제라도 간결하고 분명하고 명확하다.		

1. 목적 및 필요성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를 세운다는 기치 아래 출범한 지 꼭 74년 만의 일이었다. 그 이후 세계경제는 인간의 자유이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다. 현대의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은 정교하게 설계된 법률 · 경제 · 정치적 지원을 통해 급속한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한편, 우리 나라는 일제 35년간의 경제수탈과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미약했던 경제기반마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민족적 갈등과 혼란을 틈타 1962년 군사쿠데타로 강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활용한 전 국민 정신계몽을 통해 불과 20년이 되지 않아 세계 최빈국의 나라를 개발도상국의 위치까지 격상시켜 놓았다.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전 국민을 결속시킨 군사정권은 세계경제의 팽창과 자유화 물결에 힘입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그 결과 우리 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무역규모라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경제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경제성장의 밑바탕에는 온 국민들의 단결된 마음과 순수한 희생이 있었지만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엄청난 속박과 억압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심한 반감과 반동으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미 군사정권 하에서 고착화된 정경유착의 강력한 고리로 인해 대기업 집단으로 부

가 집중되는 왜곡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배계층과 보수세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우리 국민들은 정당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거부반응과 저항을 나타내는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경제 및 사회에 내재해 있는 갈등구조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공동체 와해 현상을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우리 나라와 온 국민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과 경제적 행위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한국경제 및 사회의 문제점 분석

2.1 한국경제 고도성장기의 특성

우리 나라는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 정희 정권이 1962년부터 실시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되었다.¹⁾ 개인의 이기심을 통한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자유시장 경쟁을 통한 부의 획득을 정당한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시기의 경제발전은 자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이 아닌 공산주의식 ‘계획경제’로 인한 결과였다. 예컨대, 90년대 중반까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각종 요금(목욕탕, 모텔, 세탁소 요금 등)과 생필품 가격(소주, 라면 등)을 통제해 오다가 95년에 경제기획원을 해체하면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되었다.

2.2 고용불평등으로 인한 임금격차의 심화

90년대 초반까지 우리 나라는 대만과 더불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완화되다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불평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격차도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 빈곤의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층 비율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성린, 2008).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심화(중소제조기업의 임금은 제조대기업 임금의 50%~25%에 불과함),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전체 임금근로자의 50%~30%)²⁾, 영세 저소득 자영업자의 양산, 매년 전체 노동자의 1/3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1)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1-62년에 170~180달러에서, 79년에는 1,700달러(10배) 그리고 94년에는 1만 달러(56배)를 달성하게 된다.

2)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3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20% 이하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OECD 국가의 평균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이내에 30-40%, 3년 이내에 60-70% 이다.

하는 짧은 고용기간, 세계 2위의 긴 연평균노동시간(2012년, 2,163시간)과 낮은 노동생산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20년간 경제성장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일부 초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국민의 80%는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3 국민의 삶의 질과 기업의 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4%로 나타났지만, 그 과실은 임금증가를 통해 가계로 분배되기 보다는 대부분이 기업에 유보되었으며, 기업은 이를 재투자를 통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고용창출을 하는 선순환의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였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가계 대출로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 가계의 부채규모는 1,400조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 상당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중산층의 소비부진을 초래하였고 기업의 부채비율 및 투자감소는 고용창출과 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의 근간이며 소비의 주체인 중산층의 1/3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우리 경제는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삶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기업의 부로만 축적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4 금융자본주의의 실체와 돈의 가치

초기 자본주의 이론에 의하면 시장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금융시스템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 하에서는 물가변화를 수요-공급의 원리만으로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금융자본주의 하에서는 통화량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금융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게 되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물가상승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금융권의 통화량 공급증가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앞서 논의한 국내 산업구조의 모순만이 아니라 세계적 금융시스템 그리고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초강대국의 경제·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2.5 자유주의 사상의 극대화로 인한 공동체 와해 현상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 ~ 1790)가 『국부론』을 통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므로 국가개입을 반대한 이래 국가의 경제개입론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전개되어 왔다. 이 자유방임이론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독점자본주의가 출현

하면서 그 지지기반을 잃게 되었다가 1930년대 대불황의 영향과 2차 대전 이후 전후 복구의 필요성과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의 건국,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들의 식민지 해방 이후 산업화 추진을 위해 국가개입주의로의 극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는 후생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이었다(이윤재, 2004).

이러한 국가개입주의는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의 붕괴, 개발도상국의 탈규제 프로그램 확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복지국가주의의 권위 상실 등의 영향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주의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중심이 되었는데 고전적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을 지지하면서 자유시장기능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은 무용하고 비생산적임을 주장하였다. 장하준(2006)의 주장처럼 사실 반개입주의자들의 공통점은 경제의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몰입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글로벌화된 경제상황 하에서 중앙계획 경제는 비합리적이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탈규제 및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극심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이후 강력한 국가개입과 국제 간 공조 및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형태의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상황,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개발 목표가 상이한 만큼 국가개입 정도나 경제정책의 채택도 각국의 실정에 맞게 구사되어야 한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게 만들었다.

초기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기초를 마련한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칼빈(J. Calvin, 1509~1564),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 등은 개인에 의한 부의 집중현상은 반성경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 의한 경제개입과 소득 배분정책은 성경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윤재, 2004).

한편,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유보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근대적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결합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는 독과점 및 노동착취,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간생존의 위험 등 과도한 경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심각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정치적 갈등만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3. 자본주의의 한계와 인간의 탐욕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해 그 정당성이 보장받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 이성(理性, reason)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도 경제적 행위를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추구해 나가게 되면 자연히 공익(public interest)이 달성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담스미스의 이론은 당시의 중상주의적 · 폐쇄적 경제시스템 하에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지만, 개인주의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인간성 상실, 물질만능주의, 사익을 공익보다 우선함으로 인한 공동체의 와해 현상 등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들을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모든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동산을 떠난 것으로 규정한다. 성경에서는 부족함 없는 유족한 상태인 동산 안의 삶이 끝이 나고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생이 종신토록 이마에 땀에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으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냄으로써 고난과 투쟁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계시하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에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은 하나님의 동산을 떠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며, 동산을 떠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은 판단능력을 지니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아닌 자신의 자율적 이성을 통해 빛을 발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이성의 빛이야말로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카르트(1596-1650)는 “모든 것은 회의(懷疑)가 가능하지만 회의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회의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여기 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 이성의 시대, 근대 철학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 그 이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율성과 이성을 극대화한 사상가들이 17세기 이후에 대거 등장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정치적 자유를 주창한 로크(1632-1704)의 사회계약론,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한 아담스미스(1723-1790)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이성을 통한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한 칸트(1724-1804)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 사상가들의 영향으로 서구 사회는 인간 이성의 합리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기를 향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발달한 초기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을 경험하면서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는 ‘인간 본성과 자본가의 윤리’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류사회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사상적 · 경제적인 분열을 경험하게 되었다. 즉, 마르크스(1818-1883)는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하던 자본가들을 ‘노동자의 이익을 착취하는 끝없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자’로 인식한 반면, 막스 베버(1864-1920)는 자본가를 ‘이기심에 따라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절제와 금욕 그리고 윤리적 정신을 지닌 합리적인

인간'으로 파악하였다.

공산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인간이 개발해낸 가장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비전이었으나 이를 실행하는 진정한 공산주의 인격체의 부재로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공허한 이론이 되고 말았다. 즉,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개혁을 시도해온 어떠한 사람도 진정한 공산주의적 인격체-계급이 소멸하고 생산력이 극도로 확대된 이상사회에서 의욕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12세기 이후 발달한 금융업, 중세 교회법과 로마법을 연구하던 법률가들이 고안해 낸 법인(法人)의 개념 그리고 1856년 영국의 주식회사법을 통해 탄생한 주식회사 제도를 통해 그 지지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켜 경제활동을 빙자한 수 많은 범죄와 파괴적 행위를 일삼아오고 있다. 범죄하여 위치를 이탈함으로써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탐욕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인류는 타민족의 문화와 재산을 파괴시키고도 자신을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경제적 침탈행위를 여전히 거치지 못하고 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가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계적 경제위기인데, 이로 인해 수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이 겪은 고초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4. 유일한 대안 :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재창조되는 새로운 사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인류는 배고픔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탐심과 야욕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가들과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날 고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인류를 끊임없는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수의 사람만이 막대한 경제적 부를 향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 살지 못하게 된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 - 네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것이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 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후세의 인류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따라서 인류가 탐심의 바벨탑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너는 오직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모든 인간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으며, 그 해답은 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해답은 언제라도 간결하고 분명하고 명확하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죽어 지금도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계신다. 우리의 길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어 우리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로 인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것이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SBS CNBC 인문학 특강, 장하성, 정의로운 한국자본주의는 가능한가?, 2015.
- 2)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가나출판사, 2013.
- 3) 알기 쉬운 국부론 요약, 이문 버틀러 지음, 이성규 옮김, 울곡출판사.
- 4) 나성린(2008. 2),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신동아』, 통권 581호, 150-159.
- 5) 부자의 돈 빈자의 돈, 박홍근, 아람드림미디어, 2012.

소모임명	2H(Holistic Health) @ BU(Baekseok University)
소모임 구성원	임소연, 김지원, 김희정, 윤미선, 이수영, 함순예, 황수진교수

1. 목적 및 필요성

신체에 관한 과학적, 의학적 문헌고찰은 질 높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장·단기 건강한 생활의 습관형성과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본 보고서에서 고찰한 문헌은 임상에서 건강한 생활양식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보를 기반으로 주로 대사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건강한 생활습관과 행동수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기 위한 주교재로 사용하기에는 가장 유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이 문헌에서는 의학을 기초로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주요한 핵심 내용을 강조하였고, 성인 인구의 70%는 충분한 신체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성인인구의 3분의 2는 과체중과 비만이며, 전체 성인인구의 20.6%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20년간 2배로 증가한 당뇨병환자, 성인인구의 3분의1이 고혈압이 나타나고, 성인남녀가 매년 심장질환으로 인한 치사율이 37%라는 등의 만성질환의 위험요소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령과 성별에 구분 없이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양식은 경제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높은 건강을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한 생활양식을 갖기 위한 기회와 도전을 위해 학문적 이론을 기반으로 몸으로 실천하는데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의 목표는 다 학제적인 접근방법으로 건강한 생활양식과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탐색 및 숙지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삶에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한 안내지침서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 문헌고찰

2-1 직장 내 건강증진

비만과 흡연을 비롯해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에 이르기까지 최근 미국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황은 부정적이다. 증가하는 의료비용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의 상황도 밝지 않다. 직장에서 건강증진은 피고용인의 건강과 회사의 경제적 측면 둘 다에 중요하다. 피고용인에게 고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회사의 목표와 사회적 책임을 이루도록 돕는다. 직장에서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은 회사의 구성원과 회사를 보다 건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직장에서의 건강증진과 필요성과 함께 Dow 화학회사의 긍정적인 사례를 집중하여 설명할 것이다.

1)법인과 직장에서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한 근거

회사는 건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직장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잘 계획된 직장 건강 프로그램은 피고용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의 위험을 감소하고, 불필요한 건강관리, 질병으로 인한 잦은 결근, 건강과 관련된 생산성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성인들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직장은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이다. 건강과 기업의 생산관리 및 투자수익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인 Dr. Ron Goetzel은 직장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 조직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 직장에는 공동의 목표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 근로자와의 소통이 쉽다는 점.
-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지지가 가능하다는 점.
- 정책, 절차 등이 도입되고 조직의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재정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한 보다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 많은 질병과 장애가 예방가능하다는 점.
- 많은 질병과 장애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에 의한다는 점.
- 이들 위험인자들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 위험인자의 개선을 통해 건강관리 비용과 잦은 결근을 감소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 잘 계획되고 시행된 직장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프로그램이 돈을 절약하고 투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직장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다양한 면에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여준다. 56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평균 27% 감소
- 건강관리 비용을 평균 26% 감소
- 고용주 보상비용과 장애청구 비용을 평균 32% 감소

여러 자료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미국의 많은 회사들은 근로자의 낮은 건강상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안전성,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결국 고용주에게 고비용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사업현장에서, 건강상태가 나쁜 근로자는 의료지출을 많이 하고, 보다 잦은 결근을 하며, 장애 증가, 사고 증가, 준 최적의 생산성(suboptimal productivity)을 초래한다.

핵심가치적 측면에서, 하위수준의 건강관리비용 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포춘 50대 기업

중 한 기업은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핵심가치 적 측면에서, 하위수준의 건강관리비용 지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포춘 50대 기업 중 한 기업은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사례: 다우 모델(The DOW MODEL)**

다우케이컬은 90년 동안 직원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20년 이상 집중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우케이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지하여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부상과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생활방식의 변화는 다우케미컬 직원들이 직면한 건강문제인 불규칙한 일을 다루는 것이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다우케미컬의 장기적인 비전은 다음과 같다.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위험인자를 줄이고, 직원의 건강관련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만족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이러한 다우케미컬의 비전은 “Total Health”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전략으로 이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회사의 전반적인 기반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우케미컬의 비전은 37개국 214개에 달하는 다우케미컬의 작업장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러한 비전은 현지 사업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목표와 계획에 의해 지지를 받아 시행된다.

***구성원의 건강을 생각하는 다우케이컬의 경영사례**

2004년 다우케미컬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 요청에 의해, Dow Health Services and Healthcare Benefits groups이 다우케미컬 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경영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 다우케미컬은 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히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성장보다 큰 비율로 증가한다.
- 다우케미컬이 질적 개선, 낭비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예방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2-2 생활양식을 통한 심혈관질환 예방

심혈관질환은 매년 미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높은 사망원인이다. 약 37%의 사망이 심혈관 질환에서 비롯된다. 생활습관 및 운동은 이러한 역학에 대해 유의한 기여를 한다.

1)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감소, 예방, 치료를 위한 생활습관 전략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식이 및 생활습관 추천은 다음과 같다(American Heart Association).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활동과 칼로리 섭취의 균형을 맞추기, 채소

와 과일이 풍부한 식이를 섭취하기, 소금이 없거나 적은 음식 선택, 설탕이 첨가된 음식이나 음료의 섭취 최소화,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씩 기름기 있는 생선 섭취, 포화지방의 섭취를 에너지의 7%미만, 트랜스지방은 1%미만, 콜레스테롤은 일일 300mg미만으로 섭취(살코기, 채소 섭취, 무지방, 저지방, 1% 지방 유제품 선택, 특히 경화된 지방섭취 최소화), 통 곡물, 고 섬유소 식이 섭취, 알코올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혈압관리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상혈압(SBP<120 & DBP <80mmHg), 고혈압전기(SBP 120~139 or DBP 80~89), 고혈압1기(SBP 140~159 or DBP 90~99), 고혈압2기(SBP 160이상 or DBP 100이상). 체중감소, 적절한 식이, 저 염식, 신체활동은 혈압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 흡연은 위험요인을 증가시킨다.

비만, 복부지방증가는 심혈관질환을 증가시킨다. 당뇨병은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심혈관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75%의 사망원인이 된다. 미국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2008은 중강도의 150분 혹은 고강도의 75분 활동을 매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강도의 활동에는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등이 있다. 신체활동은 심폐, 근육, 뼈 건강을 향상시키며 심혈관계 및 대사와 관련된 생리학적 지표를 향상시키며, 신체 구성을 좋게 한다. 성인에게서 신체활동은 조기사망률을 낮추며, 심혈관질환, 뇌졸중, 고혈압, 고지혈증, 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 대장암, 유방암을 감소시키며, 비만을 예방하고 우울을 감소시키며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체중감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500~2800 kcal(60~90분/일의 중강도 신체활동)가 소모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체중감량을 위해서 일주일에 2800kcal까지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이상지질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저밀도지단백, 중성지방 상승, 고밀도지단백 감소로 정의된다.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상승은 동맥경화증 및 심혈관 질환으로의 이환에 영향을 미친다. 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해 동물성 식품, 특히 붉은 육류, 유지방, 버터, 마가린, 상품화된 구운 음식(포화지방산을 포함한) 섭취를 줄여야 한다. 트랜스지방산 섭취는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에 최소화하여야 한다. 오메가3는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혈관 사건을 20~30% 감소시키며, 지방이 많은 생선을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 혹은 매일 오일 캡슐을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DHA, EPA 생선 오일 보충제는 중성지방, 초저밀도콜레스테롤, 비고밀도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고밀도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므로 스사틴 제제와 함께 효과적인 고지혈증의 관리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소화되지 않는 섬유소가 많은 식이는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수용성 섬유소는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통 곡물(특히 �트), 과일, 채소, 콩에 함유되어 있다.

2-3 건강한 정상성인을 위한 운동처방

신체적 활동을 늘리는 것은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운동과 전체적인 신체적 활동의 증가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

*신체적 활동 시 추천 사항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미국인을 위한 신체적 활동 지침서를 내보냈다. 18~64세 성인은 중등도 강도(moderate-intensity)의 유산소 운동을 주당 최소 150분을 추천 받았으며 활동의 이점을 증가시키려면 주당 최소 300분을 완전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교대로 격한 강도(vigorous-intensity)의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여 중등도와 유사한 이점을 축적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주요 근육군이 포함된 저항훈련은 매주 최소 2번이 추천된다.

1)운동처방

*운동 훈련 원칙

신체적 활동과 운동 훈련에 대한 목적과 반응이 사람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발전시킬 때 3가지 일반적인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점진적인 과부하(overload), 특이성(specificity), 그리고 되돌림(reversibility)

*점진적인 과부하 : 꾸준히 과부하를 주게 되면 생리적 향상은 주어진 기간 이후에는 수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점진적 과부하란 용어는 보다 더 향상을 인지하기 위해선 훈련 자극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전체적인 훈련 자극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활동의 강도, 기간, 빈도의 증가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특이성 : 과부하는 훈련에 스트레스를 받는 근육군과 생리학적 시스템에 순응(adaptation)을 일으킬 것이다. 개인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훈련에 더하여, 훈련향상을 평가하는 것은 적용한 훈련과 일치하는 검사법을 포함해야 한다. 되돌림 : 신체가 신체적 활동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순응하는 것처럼 신체적 무활동(inactivity)에는 부정적으로 순응한다. 나쁜 몸상태(deconditioning) 비율은 이전 훈련 수준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훈련이 단축되었는지에 따라 다양하다. 보다 실제적인 감각으로 건강 수준은 운동 중단 2주 이후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매주 2-3일의 지구력 훈련과 주당 최소 한 번의 저항 훈련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얻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심호흡 지구력 훈련(cardiorespiratory endurance training)

최대 산소소비량(VO_{2max})를 통해 심폐 건강을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잇점이 VO_{2max} 를 향상시킬 것 같지 않은 중등도 강도의 신체적 활동에서 인지될 지라도 강한 반대의 관계가 VO_{2max} 와 전체적인 사망률 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성 질환 간에 존재한다. 운동 유형(type of exercise) : 심폐계통을 과부하 하는 활동은 실재하여 반복적(리듬적)이면서 대근육군을 포함한다. 그 예로 빠른 보행, 달리기, 자전거타기, 노젓기, 타원형 기계에서 운동하기가 있다. 의학적 상태가 그 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운동은 골다공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체중을 지지해야 한다. 운동 시작 시 보행은 기술을 거의 요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다른 양상(modality)보다 더 적게 과사용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활동이다. 운동 강도(intensity of exercise) : VO_{2max} 향상은 일반적으로 50~85%의 $VO_{2reserve}$ ($VO_{2reserve} = VO_{2max} - VO_{2rest}$)로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달성될

수 있다. 매우 효과적인 강도는 부분적으로 운동 기간과 빈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O_{2max} 의 보다 큰 향상은 전형적으로 더 높은 강도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더 높은 용량의 운동은 (강도, 기간, 그리고 빈도를 포함한) 과훈련 증상(즉, 피로, 손상, 수행력 감소, 면역기능 억제)을 초래하기 쉬울 것이다. 60~80% $VO_{2reserve}$ 에서의 운동훈련은 일반적으로 VO_{2max} 향상을 일으킬 것이다. 중등도 강도의 신체적 활동은 40~60%의 $VO_{2reserve}$ 를 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격렬한 강도의 신체적 활동은 60% 이상의 $VO_{2reserve}$ 를 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성인의 HR_{max} 를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은 " $HR_{max} = 220 - \text{나이}$ "이다. 40세에서는 매우 정확한 공식이지만 40세 이하나 이상의 연령에서는 평가절하 된다. 좀 더 정확한 공식은 " $HR_{max} = 206.9 - (0.69 \times \text{나이})$ "로 최근에 소개되었다. 공식 사용과 상관없이 전 연령대의 성인에 걸쳐 HR_{max} 은 분당 10-12 비트의 표준편차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시간 : 심폐 건강의 향상을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간과 강도와 함께 회기 당 20-60분이 추천된다. 예를 들어, 더 높은 강도에서 20-30분 운동은 더 낮은 강도에서 50-60분 운동과 유사한 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

*운동 빈도 : 3~5일간의 운동은 전통적으로 심폐 운동의 향상을 위해 추천된다. 매주 150-300분의 중등도 강도의 지침서대로 라면 매주 6 또는 7일간의 운동을 실시해야 되는 반면, 격렬한 강도의 운동 빈도는 약간의 부가적 건강 이점을 내는 동안 손상의 기회를 쉽게 증가시킬 것이다. 휴식 또는 더 약한 활동 상태인 회복기간은 일반적으로 좀 더 격렬한 운동 사이에서 필요한 반면,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신체적 운동은 체중 감소나 체중 유지를 위해 옹호된다. 전체적인 운동 용량(volume) : 1996년 일반외과의 기록은 건강의 이점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주당(weekly)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량으로 1000kcal을 추천하였다. 이런 추천은 미국 신체적 활동 지침서에서 추천한 매주 150분의 중등도 강도 또는 75분의 격렬한 강도의 신체적 활동과 일치한다. 용량-반응 관계의 개념은 보다 최근 추천에서 더 명백하다. 즉, 보다 많은 양의 신체적 활동은 보다 큰 건강의 이점을 가져올 것이다.

2-4 성공적 노화

-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은 "장수 혁명의 위기"에 직면
- 2030년까지 5명의 미국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통계
- 보건 지출 ; 고령 인구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킬 수 없다면 25%까지 증가할 것임

1) 정의

- 인지 기능, 사회적 기능, 삶의 만족도, 질병의 부재 등 다른 구성 요소가 포함
- 867명의 고령자 (65 ~ 99세) 중 18.8%만이 성공적으로 노화로 분류됨을 발견
- 고령자의 설문에서는, 건강, 신체적, 기능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으로 나타남

2) 모델

- 이 모델의 개발은 고령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생활 방식, 심리 사회적 요인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여 질병 및 장애와 같은 노화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노화 연구에서

의 극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는 것

-Rowe and Kahn의 SA 모델의 기초: 질병 및 질병 관련 장애의 위험이 낮고, 정신적, 신체적 기능이 뛰어나며 일상에서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

3) 생애주기를 통한 노화연구

-라이프 코스 접근법의 채택 ; 성인 기능은 초기 생활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노화는 "분자 및 세포 손상의 축적 속도에 의해 좌우 된다"고 함

4) 성공적 노화의 진단

-Depp and Jeste ; SA의 주요 결정 요인은 크게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환경적 범주로 구분함

-나이를 먹을수록 유전학의 영향력은 덜 받고, 환경 및 생활양식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는 것

-노화 과정은 세포가 번식하는 속도,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로 발생

-영성은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웰빙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5)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설계 : 운동 및 신체활동의 중재연구의 결과에 따른

- 운동이나 신체 활동이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 현재 권장되는 신체 활동; 중등도 호기성 활동을 최소 150분/주, 활발한 강도 활동 75분/주- 한 가지 유형보다 다양한 유형의 신체 활동 중재가 장애 위험을 감소시킴(예 : 보행, 사이클링, 구조화 된 운동 클래스)

* 인지자극훈련(Cognitive Training and Stimulation):고차원 인지 과정 중재

-건강한 노인, 경증 인지 장애 노인 모두 인지 기능을 현저하게 향상시킴

*식이요법 영향 (Dietary Influences)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식이 섬유,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을 권장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

-SA와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칼로리 제한(CR) 식이 섭취 감소의 이점을 입증함; 혈압 감소, 체질량 지수, 중성 지방 수준, 콜레스테롤 개선 등과 질병 발생을 감소시킴

- 특히 칼슘, 엽산, 오메가 3, 항산화 비타민 포함, 추가 비타민 D 보충제 필요함

* 사회소속과 봉사활동Social Engagement and Volunteerism

-노년층의 자원 봉사는 건강 유지 비결

-생산 활동에 종사 ;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생존율과 긍정적 관련성

-의미 있는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 고령자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지지

6)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

-70 세에서 89 세 사이의 장애 노인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중재 연구;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개선을 보임

-연구 검토 결과: 참여자에게 높은 목표 설정, 집중식 중재가 더 나은 결과.

7) 성공적 노화를 위한 건강 증진팀의 역할

-건강관리 전문가가 고령자에게 SA를 홍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

-일차 진료 의사/PA 상담; 최소한 단기간에 효과적

-임상 간호 전문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운동 처방사

-학제 간 팀 접근이 요구됨

"성공적인 노화"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되는지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인지적 장애 감소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수정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과 행동 요소는 분명히 유전적 유산보다 중요하고 실제로 경험된 고령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행동 선택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성인의 건강과 웰빙을 최적화하는 데 분명히 중요하지만, 노인에 있어서 수명의 궤도를 바꾸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다. 건강관리 전문가는 그 변화에서 중요한 촉진자이자 중재자이다. 정기적으로 노인 환자들에게 신체 활동의 이점에 대해 상담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피하게 함으로써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인들에게 매일 인지 및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은 심리적, 정서적 도움이 될 것이다.

비정상적인 신체적/인지적 변화를 조기 발견하는 것은, 노년층이 독립적이고 사회적 참여를 하는데 위협적인 장애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중요한 첫 단계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하는 적절한 정기적 검사와 추가 검사를 받고, 의료보장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진료를 통해 외래나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장기적 성공의 보장을 위하여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 건강관리 제공자가 없으므로 지식, 기술, 자원이 있는 체계적 협력팀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행동 변화가 예상될 수 있는 경우 보건 교육자 및 기타 지역 사회 및 가정 기반 서비스 제공자와 일차 진료 의사, 의사 보조원, 물리 치료사와 직업 치료사, 임상 간호 전문가를 연결하는 전문가 팀을 구성해야 한다.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훈련을 받고, 효과적 중재를 시행하기 위하여 추가 자원 및 인력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차 진료 제공자가 고령 성인 환자에게 정기적 건강 증진 요법을 시행함에 있어, 현존하는 많은 어려움 극복을 위해 결과와 연계된 재정적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5 아동의학의 생활양식 요소

1) 아동예방의학

아동의 예방의학은 일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치아관리, 균형 잡힌 식단, 안전 수칙 등이 돌봄 제공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인 다양한 면에서 성장 발달할 뿐 만 아니라, 자율성 등 문제를 결정하는 능력이 증가하므로 예방의학은 발달수준에 적합한 예방의학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서는 건강행위생활양식은 45세 이후 성인에서 습관이 형성되는 것보다 7살에 형성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① 즐거움을 유발하는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운동은 습관으로 형성되어 심근경색, 고혈압, 비만, 당뇨, 골다공증, 암등을 예방하는 것(이러한 행동습관은 파블로의 조건적 인지학습이론을 지지한다.) ② 생물학적인 인 영향으로는 학령기인인 6세에서 16세 청소년시기 혹은 뇌손상은 신체활동이 감소되는 한 요인 ③유전적 환경 ④ 가족, 학교환경 등의 영향은 예방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아동비만과 대사증후군

아동의 비만의 정의는 BMI로 산정하여 85~95% 수준을 과체중이라 하고, 95%이상을 비만이라 한다. 아동의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glucose 100mg/dl 이상, triglyceride 150mg/dl 이상, HDL-C 40mg/dl이하, 허리둘레 102cm 이상, 수축기혈압130mmHg이상, 이완기혈압 85mmHg이상이다. 2007년 연구결과에서는 10에서 17세 연령아동의 과체중은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만은 16.4%이다. 비만과 관련된 위험요소로는 유전인자, 내분비계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인종과 문화, 제대 기간내 자궁 내 환경, 출생 시 체중(미숙아는 아동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식이, 신체활동, TV보는 습관, 수면 시간(짧은 수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도시인구등이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10가지 수칙으로는 ①6개월간 모유수유권장하기 ②단 음료 제한하기 ③TV시간 하루에 2시간 내 제한하기 ④하루에 60분 이상 중등도 운동 권장하기 ⑤하루에 5~9가지 과일과 채소 섭취하기 ⑥일주일에 5~6번 가족과 식사하기 ⑦패스트 음식은 멀리하기 ⑧음식량은 1인분 양으로 제한하기 ⑨매일 영양 높은 아침음식 섭취하기 ⑩칼슘과 섬유질이 높은 영양 높은 음식 섭취하기

3) 아동의 동맥혈관 기능

심혈관계 질환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 죽음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증명되고 있고, 동맥경화증은 아동초기부터 진행되어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르게 된다. 부검을 통해 확인된 결과로는 일반적으로 3살부터 대동맥에 지방의 축적으로 동맥경화의 진행이 시작되고 사실상 청소년기와 성인초기에 관상동맥에 지방조각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6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섭취와 생활양식

임신기간 동안의 식이요법과 건강한 생활습관은 임부와 태아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유지를 위해 중요한 요인이다. 임신은 질병이 아닌 정상적인 생리상태이므로 여성은 건강한 임신기간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일과 여가, 운동 및 식이섭취를 해야만 한다.

1)임부의 체중관리

임신동안의 영양섭취의 목표는 임부와 태아의 적합한 영양섭취를 통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임신 시의 과체중은 분만 후 체중증가와 그 이후 비만의 삶을 지내게 되는 요인이다.

*적당한 임신 시 체중 조절은 총 임신기간 동안에 1주일에 1파운드 증가로 총 25~35파운드이며 BMI는 20~25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임신 시 임부는 칼슘의 섭취를 필요로 하고 이는 태어난 영아의 6개월간의 혈압유지와 칼슘을 보충해준다.

*임부의 엽산섭취는 태아의 신경계 결손, 예를 들자면 이분척추와 무뇌증을 예방한다. 적당한 섭취량은 0.4mg을 필요로 한다.

*임부의 오메가-3는 유산분비증가와 산후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태아에게는 신경학적 인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임신3기에는 태아의 뇌의 성장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는데 DHA인 오메가-3는 중추신경계선당에 중요한 영양소이다.

*미국성인의 2.5%는 채식주의자인데 연구결과에서는 비채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의 출생 시 신생아의 몸무게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임신부는 적합한 단백질과 B12와 아연을 식단으로부터 섭취해야 하는데 채식주의자들은 야채단백질, 두유 식물성 마아가린과 곡류섭취로부터 보충한다. 한 연구에서는 채식주의자 임부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제대혈관에서는 오메가-3인 DHA의 혈중수치가 낮게나왔다. 그 외 임부의 흡연, 음주, 감염 또한 임부에게는 철저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요인들이다.

임부의 영양섭취와 생활양식은 신생아와 산부의 건강유지와 밀접하므로, 계획되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운동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된 안내지침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7 행동심리학(Behavioral Psychology)

생활양식과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심리학은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 운동참여 활성화, 금연, 체중감소 및 유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건강한 생활양식증진”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건강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반응적인 활동 및 계획적인 행동양상으로 활동하도록 조언합니다. 또한 개인 간의 노력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또한 사회생태학이 건강에 유의한 차이를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행동의 개입을 유도하여 행동의학, 공중보건 및 의학 분야에서 개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에서 점차적으로 지역 및 지구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생태모델과 이론으로 개인의 표적 건강에 대한 내용을 외부장벽에 관계없이 대입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운동참여의 활성화에서는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동 및 인지적 중재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의 상상훈련과 동기부여를 포함한 자기-모니터링의 확대적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기관찰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운동양상을 파악하고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고 선진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지지, 컴퓨터와 웹 사이트에 기초한 중재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면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금연에서는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설명하고, 금연의 효과와 금연기간, 금연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중감소와 유지에서는 체중감소에 대한 개인의 행동적 전략 강조, 자가-모니터링, 자극 조절, 목표설정 및 목표에 대한 노력과 강조, 인지 재구성, 사회적 지지 등을 강조하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를 위한 집단을 설정하고, 성공적인 체중 유지자들이 적용하는 전략 등을 공유하며,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본 교재에서는 비만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체중관리를 위한 행동적 접근법과 경험적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자기-모니터링에서 음식섭취량, 신체활동수준 및 체중효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스마트폰과 그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첨단기술과 만보계 및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행동을 보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행동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건강한 생활양식은 자신과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활방식 안에서 건강한 방법을 구축하고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사회는 개인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지속적인 관리와 보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 결론

늘 생각하고 다짐한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 안에서 주어진 가르침의 사역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 몸과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의지한다.

“내 아들이 내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잠 4:20-22).

“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다 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시편 39: 12-13).”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전 2:24-26). ”

백석대학교는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백석학원의 모든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야 한다. 백석 학원의 구성원

인 교직원과 학생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James M. Rippe, MD. (2013). Lifestyle Medicine 2nd. Ed.

소모임명	직장에서의 영성	소모임 구성원	최애숙, 구정아, 이은주, 이은희, 김현경
연구 결과의 요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일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의 경험 속에서 크리스천인 나는 어떻게 살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일과영성’과 ‘관계의 영성’ 두 문헌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필요한 일에서의 영성과 관계의 영성을 살펴보았다. 일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중의 하나이다. 일을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정체성 확립에 핵심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은 자아 발견의 주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삶에 목적을 주는 주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는 걸 으뜸으로 삼고 살도록 지음 받았으며, 거기에 충실해야만 비로소 탈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과 회복으로 압축할 수 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의 성경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 전반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됨의 근거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진리는 서로 같은 것이므로 진리는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됨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역량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다. 관계적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옳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세상이라면 우리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관계는 신비를 간직함으로써만 살아 있을 수 있다. 관계에는 이상함과 예측 불능이 필요하다. 모든 관계는 알림과 숨김이 어우러져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많은 사람들이 일 속에서 살고 있으며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간혹 우리는 일을 꼭 해야 하는가?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일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의 경험 속에서 크리스천인 나는 어떻게 살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

성경적으로는 ‘일은 생존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 일 자체가 필수적이며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중의 하나이다.’ 라고 설명한다. 일을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정체성 확립에 핵심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은 자아 발견의 주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을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보면 단순히 실존이 아니라 ‘삶’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 때문’이며, 즉 하나님은 혼자 살지 않으시고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진리는 서로 같은 것이므로 진리는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과 그 관계를 조명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일에 임하는 자세와 주어진 인간관계속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문헌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다루며 영적간호를 이끌어 가야하는 간호학 학자이자 크리스천인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필요한 일에서의 영성과 관계의 영성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일과 영성, 관계의 영성의 문헌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 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일이 필요한 까닭을 알아본다.
- ② 일의 열매와 의미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핀다.
- ③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균형 잡힌 시각을 알아본다.
- ④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현 생활에의 적용부분을 관찰하고 적용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연구 방법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과 영성(팀 켈러)과 관계의 영성(레너드 스윗)을 선정하여 읽

고 각자 읽은 내용을 소모임에서 토론하고 정리하였다.

3. 연구 결과

1) 일과 영성(팀 켈러)

① 일,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음을 밝히고, 일을 통해 기쁨을 얻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 1:31, 2:1~3, 15). 창세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일’로 묘사되어 있다. 우주를 빚어낸 광대한 프로젝트를 일주일간 진행된 규칙적인 노동으로 그려놓았다. 그 다음에는 최초의 인류가 낙원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일을 계속하셨다. 인간을 빚으시고, 그 인간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 그 밖에도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기도 하였다.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일꾼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도 하신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정복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차츰 가꾸 가야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노동을 통해 그 빚장을 열러 가게 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따라서 일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여든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그 일부는 일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된다. 성경적으로는 일해서 생존을 위해 버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 일 자체가 필수적이다. 일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중의 하나이다. 일을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정체성 확립에 핵심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은 자아 발견의 주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은 의미 있는 인생과 떼어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삶에 목적을 주는 주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좇는 고유한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신체적으로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과 일상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손을 놓고 쉬어야 한다. 주님은 굳이 쉬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비우셨다(창 2:1~3).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휴식은 생기를 불어넣는 선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들어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일과 쉼의 균형을 잡는 신학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이야말로 말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출발점이다. 성경의 시각은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일이란 일은 죄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증표로 인식한

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인간이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기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일 자체가 존엄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하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으며, 신약에서는 목수였다.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의 하찮은 일은 없다. 하루하루 하는 일은 무엇이 됐든지 결국 친히 부르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에 대해 혁신적인 통찰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불러서 과업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힘을 주므로 자아를 실현하고 권력을 얻을 속셈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아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최대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복음은 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순전히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일에 관해 또 다른 통찰을 준다. 복음은 일에 기대어 자신을 입증하고 정체성을 지키라는 압력에서 해방시켜 준다. 이미 인정받고 안전해졌으므로 달리 애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남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는 것들(구원, 자부심, 선한 양심, 평안 따위의)을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하면 그만이다. 인간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길은 주어진 과업을 끝낼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게 크리스천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능숙함'이 되어야 한다. 각자의 달란트를 최대한 노련하고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② 일, 끝없이 추락하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사랑하는 걸 으뜸으로 삼고 살도록 지음 받았으며, 거기에 충실해야만 비로소 탈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사는 쪽을 택하면 모든 게 뒷걸음질 치게 된다. 인류에게는 지위와 권력, 인정과 성취, 로맨스와 성적인 쾌락, 풍요와 위안에 끌리는 '원초적 본능'이 있다. 이로 인한 개인적인 우상들은 노동을 비롯한 인간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자극하고 빚어낸다. 위안과 쾌락의 우상은 충실하고 생산적인 직장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반면에 권력과 인정의 우상은 업무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무자비하고 균형을 잃은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이끌어간다. 지배의 우상에 사로잡힌 이들은 강박적이다시피 걱정이 많고 신뢰가 부족하며 사소한 것 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는 태도 등의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한없이 다정하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이들도 이기적인 욕구나 두려움, 또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갈구 앞에서 쉽게 무너

진다. 한쪽을 콕 찍어서 이웃을 섬길 뜻을 품고 일하는 ‘좋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을 가리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제 한 몸만 생각하는 ‘나쁜 인간’으로 단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너나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기적인 DNA와 경쟁을 추구하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을 하고도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무얼 의미하는가? 이것은 무슨 일이든 커다란 포부를 품고 시작하지만 성취하는 건 그 그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한다.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 해도 일터에서 주기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생겨도 소망은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려고 일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세계를 잠깐이나마 내다볼 수 있다. 본래의 의도된 만큼은 아니지만 일은 여전히 얼마쯤의 열매를 낳는다. 좌절과 성취를 두루 담고 있으며, 아름다움과 천재성을 언뜻언뜻 드러내기도 한다. 아름다움과 천재성은 원래 노동의 지극히 통상적인 특징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 되찾을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친히 지으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망과 깊은 위안을 찾고, 온몸을 던져 일하며 열매를 구할 때마다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이 땅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을 힘을 얻는다. 아울러 이생에서 하는 일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노동의 실체가 아님을 알기에 또한 온전할 수도 없음을 받아들인다. 고생스러운 노동 없이 누리는 평온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평안이 없는 수고도 마찬가지다. 일과 평온은 둘 다 필요하다. 살면서 어떻게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느냐 하는 문제는 성경이 다루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평온의 궁극적인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 영감을 잃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충족감을 느끼며 신실하게 일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복음은 일과 관련해서 맥락이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지 설명하는 세계관이나 내러티브가 이끌어가는 방안이므로 더욱 생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한다. 셋째로, 복음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한 지혜로운 조언뿐만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건강한 지침들을 통해 대단히 새롭고도 민감한 윤리 기준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일을 하는 동기를 백팔십도 바꿔 놓을 뿐 아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하는 신선하고 강인한 힘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준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며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해내는 게 주님을 섬기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미래 세계에 소망을 둔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멘다면 자유로운 심령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③ 일과 영성, 복음의 날개를 달다

세상의 스토리를 엉뚱하게 파악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실현과 자기만족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일하는 방식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엇나간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크리스천의 스토리라인은 우주의 이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도록 매끄럽게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관의 스토리들에 깔려 있는 진리를 알아보게 도와준다. 크리스천의 스토리라인, 또는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과 회복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리는 크리스천의 세계관이라는 렌즈로 세상과 일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고, 또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죄로 망가진 사회를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갖는 진정한 의미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수준도 아니다. 복음적인 세계관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일하는 삶 전반과 손길이 미치는 조직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꼼꼼이 성찰한다는 쪽에 가깝다. 교육, 저널리즘, 예술,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인간을 영적, 윤리적, 사회적 본성을 지니고 있는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창조주께는 몸을 지으셨고 장차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노동은 거룩한 창조 사역의 연장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야 한다.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들을 위해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일하는 데 필요한 달란트와 재주를 주셨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다. 따라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도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뤄 낸 선한 일들을 곧 눈으로 바라보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이다. 크리스천은 단순히 상사와 고객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한다.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견이다. 세상의 그 어떤 상사보다도 엄격하지만 합리적인 그분의 생각을 일터 가운데 반영해야 한다.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일에 몰입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칭찬과 보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유 함 가운데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열정의 참뜻은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해당분야에서 이론 진전을 서로 알아보고 신앙과 상관없이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에게 갈채를 보내야 한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윤리기준의 수준을 넘어, 모든 인생사의 영역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 준다고 말하고 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며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내적질서와 자비, 겸손, 담대함, 만족, 용기를 심어주신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이다. 산제물의 실상을 알려주는 구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이다. 열심은 긴급과 성실 그리고 펄펄 끓는 심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는 죽고, 일 이면의 다른 일을 좇는 습관을 떨쳐 버리며, 그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한 특별한 존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준다. 그러므로 나만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자. 예수님의 쉬

운 멩에를 메고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미래 세계에 소망을 두면서 열정을 품고 일을 하자!

2) 관계의 영성 (레너드 스윗)

① 믿음은 관계이다.

저자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실존이 아니라 ‘삶’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과 맺는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혼자 살지 않으시고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적 사고란 원리와 장소보다는 유형과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원리들을 배우는 데 더 열심이라면 성경적 기독교는 포기한 것이라 봐야 한다. 성경이 일관되게 정의하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세상, 자연과 맺는 일련의 신뢰 관계들이다. 믿음은 ‘바른 신념을 품는 것’을 넘어서 ‘바른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한다.

이렇듯 기독교의 기초는 관계에 있다. 삶과 인간됨의 기초가 관계와 소통에 있다는 예수님과 선지자 미가의 사상을 과학과 기술공학이 늦게나마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은 삶의 원리가 아닌 삶의 태도에 맞춰져야 한다. 객관적인 규칙이나 객관화된 의식으로 딱 찬 신학 정보 꾸러미에서 그치지 않는, 믿음의 실천, 이야기, 노래, 전통의 지속, 기술공학, 사회적 석학들과의 연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의 자세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신념과 믿음은 크게 다르다. 신념은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헌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자진하여 받아들이는 일이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과 동일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동적이며 관계적이다. 믿음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변화를 추구한다. 그리스도인의 근본 덕목은 믿음이다.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기독교의 목적지는 본질상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 믿음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②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진리는 서로 같은 것이므로 진리는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됨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역량이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복이 되어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꺼이 옮겨 다녔다. 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늙은 나이에 모든 친숙한 것들을 등지고 불확실한 미래로 떠난 것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되 약속만으로도 유지될 만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을 ‘순종’과 ‘관계’에 대한 시험으로 설명하였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묵묵히 따르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첫 번째 ‘순종’에 대한 시험 통과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반면, ‘관계’에 대한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은 지시를 내린 분에게 따지고, 명령의 의미를 두고 씨름하고, 이삭을 변호하고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별하고 씨름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다.

성경적 의미의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거룩하신 분과 더불어 관계적이다 못해 ‘불가분의 삶’을 사는 것이다. 성경적 순종이란 하나님의 지식에 복종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비추어 산다는 뜻으로 ‘관계 속 순종’이다.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은 관계적 근본주의자이다. 즉, 우리의 근본적 관계를 첫 자리에 두고 그것을 나머지 모든 언행의 기초로 삼는다. 삶의 근본적 관계란 한 분뿐인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인간의 완전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③ 하나님의 이야기와의 관계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만대에 걸쳐 ‘비밀’을 감춰 오시다가 때가 차매 그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만대의 비밀이란 진리가 곧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사실이다. 온전한 진리는 인격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실대로 잘 체험한다. 진리는 확실성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다. 진리는 신비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실체이되 증명할 수 없는 것, 객관적 사실 훨씬 이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적 알맹이는 대담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자처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놓으신 유일한 분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삶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 삶 관계를 온전히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되어간다. 우리가 가장 깊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바른 길동무 이야기를 선택하고 평생 그것을 통해 빚어지려면, 성경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조경하여 당신의 삶에 구원의 정원을 가꾸시게 하기(야고보서) 위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신을 열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성경의 이야기들을 외워 삶으로 옮긴다. 2. 날마다 새로운 본문과 사랑에 빠진다. 3. 성경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4. 본문과 씨름하며 본문에게 말하고 본문의 말을 듣는다. 5. 제5복음, 제3언약이 된다. 이를 통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

리 삶이 하나님에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

④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옳은 것과 관계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규정을 섬기라고 두신 게 아니다. 규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적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옳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 여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잘 해나가기 위해 규칙이나 규정집을 사용하기도 한다. 혼자 서지 못하는 식물도 버팀목을 대 주면 계속 하늘을 향해 기어오를 수 있듯이 규정이 그것을 준수하는 삶에 대한 영적 성장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된다면 오르는 자는 더 높이 뻗을 수 있고, 규정을 지키는 사람은 자유로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남들과 깊은 연대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관계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축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보고서’를 보면, 자신의 관계에 대한 그분의 청지기 사역이 중심을 이룬다. 의미심장하게도, 죽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는 가족들을 챙기시는 배려였다. 가족은 관계의 다른 이름이다. 예수님은 가족이 혈연과 지연보다는 오히려 영혼과 땀이라고 가르치셨고, 열두 동역자들에게는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관계 밖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새로운 개인들도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재생산 되어 흠어져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백성 즉, 그리스도의 몸도 창조하신다.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신다.

믿는 사람들 간의 진정한 영적 관계는 다섯 가닥의 끈을 한데 낀 관계매트릭스 안에서 발생하며, 서로 함께 하는 삶의 5가지 ‘관계 법칙’으로 설명된다. 첫째, 성장하는 관계는 깊어진다. 제임스 힐먼은 깊어가는 관계를 ‘흙먼지 속의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손을 더럽히며 밑바닥 이슈들로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깊어진다. 깊어 가는 관계의 두 번째 측면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교회는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뿌리 공동체다. 둘째, 성장하는 관계는 강화된다. 참된 소통은 곧 대화이다. 최고의 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최고의 대화를 통해 밀접한 관계로 얽혀 있는 상호소통을 하게 되고, 이를 계속하다보면 진리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성장하는 관계는 벗어난다. 새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을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성장하는 관계는 반복을 요한다. 기독교 전통에서 반복을 의식이라 한다. 의식은 왜곡된 생각과 부조화의 삶에 조화를 회복해주는 활동들을 통해 관계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과 같은 반복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다섯째, 성장하는 관계는 비워야 한다. 복음의 길은 자기를 비우는 길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은 영광으로 들림 받으셨고, 우리까지 함께 들어올리셨다. 관계는 주고받기를 통해 자란다. 비움은 부재의 수용, 혼돈의 수용, 무지의 수용, 실망의 수용, 갈등의 수용, 제약의 수용을 포함한다.

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의 친밀한 만남을 수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하시는 바는 “나와 함께 걸으며 나를 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립된 가정생활과 부락생활에서 빼내어 외국인들, 낯선 사람들, 아이들, 여자들, 나병환자들과의 관계 속으로 떠미셨다.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여 식탁을 나누었고, 외국인들과 범죄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도 하나님과 합세하여 관계에 힘쓰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전도이며, 전도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나 자신의 이야기에 끼워 맞추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부름 받았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자이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들’-민음의 권속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된다. 우리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자이신 그분과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타인과의 참된 관계는 자아를 중심에서 내려오게 한다. 그것은 우리를 자기 밖으로 나오게 하며, 세상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준다. 또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를 갈라놓는 경계를 허문다.

기도는 우리를 자기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지 않게 하고 타인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한다. 초대 교회는 기도를, 우리를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더 친하게 해주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보았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목을 당신 쪽으로 끌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당신 안에 하나님께 주목할 마음이 생기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하려고 하는 일이다. 때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 타인의 범위는 가히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수용될만한 선을 그어놓고 타인을 수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다. 교회가 만일 가난한 자들과 잊혀진 자들과 동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때로 무신론자, 원수, 죄인일 수도 있다. 교회의 역할은 모든 탕자에게 잔치를 열어 주는 것이다. 전도는 탕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명하신 관계를 추구하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⑥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세상이라면 우리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타자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장소일 수도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부분적으로 우리와 자연계의 교류, 즉 하나님의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 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화목하게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난다.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둘 다와의 관계 속에 있는 만큼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기독교인과 생태학과의 연관성은 크다. 생태학은 유기체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

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종교 지도자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영적 생태학자’다.

한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물리적 몸 안에 있는 영적 존재다. 따라서 우리의 생물학적 자아는 자연을 필요로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 삶 관계-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포함하는-안에 살면 건강상 큰 유익을 얻고 있다. ‘샬롬’ 개념은 바른 관계, 평안과 웰빙의 상태다. 이는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의 바른 관계와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파생물이다.

⑦ 상징물, 예술품, 인공물, ‘사물’과의 관계

우리는 예술 작품이다. 대량 생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공 예술품이다. 다른 수공 예술품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와의 관계는 물론 우리 동료인 작은 창조자들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주는 하나님의 예술이다. 지구는 하나님의 최고의 예술 형태이며, 자연은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이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생활 종교를 지속하는 삶이다. 예수님은 몸이 있으셨다. 한때 사람들이 그분과 몸으로 접촉했다는 말이다. 인류학자 메러디스 맥과이어는 구현된 실생활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물성과 영성을 이어준다고 설명하였다. 예수님의 생활종교는 방대한 이야기와 관습과 노래, 의식을 파생시켰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동일한 생활 종교를 현재 속에 지속하고 미래에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완전하지 않은 사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사물이란 잃어버리지 않으면 도둑맞고, 도둑맞지 않으면 깨지고, 깨지지 않으면 못쓰게 된다.’ 완전한 경계란 없다. 완전한 착잔이 없고 완전한 석양이 없듯이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제자도 없다.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안달하기 보다 순간의 소중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금간 귀결이나 빈궁한 관계가 한결 더 특별해진다. 사물들과 더불어 ‘순간 속에’있을 때 우리는 그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허물 많고 빈궁한 당신과 나를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도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하신다. ‘너희가 내 것이라서 그렇다.’“

⑧ 영적 세계와의 관계

영적 추구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의 모험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이고, 진리에 대한 교의라기보다 진리와의 친밀함이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역사(사역)를 아는 것이다.

관계는 신비를 간직함으로써만 살아 있을 수 있다. 관계에는 이상함과 예측 불능이 필요하다. 모든 관계는 알림과 숨김이 어우러져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대상이라기보다 우리 경이의 근원이다. 진리는 우리가 믿음과 신비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얻어진다. 그리스도인은 길을 잃고도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적어도 예수님이 길을 이끄신다면 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는 물리적 존재다. 우리는 이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리적 몸 안에 거하는 영적 존재다. 그동안 우리는 한 발은 물질세계에, 한 발은 영의 세계에 두고 살아간다.

4. 결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직장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일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의 경험 속에서 크리스천인 나는 어떻게 살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일과영성’과 ‘관계의 영성’ 두 문헌을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필요한 일에서의 영성과 관계의 영성을 살펴보았다.

일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중의 하나이다. 일을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정체성 확립에 핵심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은 자아 발견의 주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삶에 목적을 주는 주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의 성경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 전반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됨의 근거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진리는 서로 같은 것이므로 진리는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세상이라면 우리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관계는 신비를 간직함으로써만 살아 있을 수 있다. 모든 관계는 알림과 숨김이 어우러져있다.

위의 두 문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의 그 신성함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하시는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함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이 소중한 문헌고찰과 논의는 학문과 신앙을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일치시키며 성화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참고문헌

- 팀 켈러 (최종훈 역), 일과 영성. 두란노. 2017
레너드 수윗(윤종석 역), 관계의 영성. IVP. 2016